

플랫폼 인포테인먼트와 탈정치화의 수행

-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의 비정치적 포지셔닝과 신뢰 자본*

김수안**

1. 시작하는 말: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탈정치화의 문제
2. 슈카월드의 채널 구조와 탈정치화의 배열 원리
 - 2-1. 데이터 수집과 주제 분류
 - 2-2. 주제 분포와 경제적 해석 코드
 - 2-3. 인물 서사화와 트럼프의 기호화
3. LA 시위 구간의 발화 구조와 탈정치화의 수행
 - 3-1. 라이브 스트리밍 기반 제작 구조
 - 3-2. 분석 대상과 방송의 맥락
 - 3-3. 서사 구조와 수사적 장치
 - 3-4. 발화의 전략적 철회
4. 맺음말: 탈정치화의 비용과 신뢰의 조건

국문초록

이 글은 비정치적 태도를 표방하는 플랫폼 인포테인먼트 채널에서 정치적 사안이 어떻게 탈정치적으로 재배열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를 대표적 사례로 삼아,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업로드된 영상 1,724편의 주제 분포와 섬네일을 검토하고, 2025년 6월 15일 라이브 스트리밍 중 'LA 시위' 구간의 발화 구조와 편집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슈카월드'의 비정치적 포지셔닝은 정치적 사안을 배제하는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5S1A6B5A01004124).

** 연세대학교 비교사회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방식이 아니라, 경제적 해석 코드와 인물 기호화, mimetic 유희를 통해 정치적 판단의 언어를 다른 문제들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구성됨을 확인하였다.

채널 전반에서 전쟁은 경제적 지속 가능성의 문제로, 선거는 시장 변동과 투자 기회의 문제로, 외교·통상 갈등은 외부 변수에 대한 대응의 문제로 재서술된다. 또한 트럼프는 경제 변수, 국제 갈등, 캐릭터적 유희를 동시에 매개하는 기호로 작동하며, 정치적 긴장을 소비 가능한 스펙터클로 전환하는 결절점이 된다. 한편 'LA 시위' 에피소드 분석은 이러한 탈정치화의 배열 원리가 라이브 발화 환경에서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트럼프의 비인간화 발언과 국가 폭력의 장면이 결합하는 순간, 채널의 유희적·경제적 번역 장치는 윤리적 한계에 부딪히며, 이후 유튜브 편집본은 라이브에서 노출된 발화자의 동요와 정치적 재맥락화 가능성을 사후적으로 소거한다.

이 글은 '슈카월드'의 사례를 통해 플랫폼 미디어 환경에서 신뢰 자본이 정치적 책임의 유예와 윤리적 감수성의 마모를 수반하며 축적되는 과정을 밝히고, 탈정치화가 수행되는 구체적 양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슈카월드, 탈정치화, 비정치적 포지셔닝, 인포테인먼트, 라이브 스트리밍, 신뢰 자본, 플랫폼 미디어, 유튜브, 밈)

1. 시작하는 말: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탈정치화의 문제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은 정치적 소통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재편하였다.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다변화됨에 따라, 과거의 피라미드형 소통 모델은 해체되었다.¹⁾ 이와 함께 20세기 중후반 동안 자연화되었던 뉴스와 오

락 사이의 경계가 구조적으로 침식되면서,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는 더 이상 전통적인 뉴스의 형식을 통해서만 유통되지 않는다.²⁾ 이러한 변화는 정보와 오락의 경계를 체계적으로 횡단하는 인포테인먼트 형식의 채널에서 특히 선명하게 드러난다.³⁾ 이질적인 소통 문법이 교차하는 담론적 환경에서 정치적 쟁점은 공적 책임과 결부된 실천적 판단의 영역을 벗어나 즉각적으로 소비 가능한 콘텐츠로 재맥락화되기 쉽다.

이 글은 정치적 사안이 재배열되는 과정을 탈정치화(depolicitization)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여기서 탈정치화란 정치 바깥으로 벗어난, 정치 부

-
- 1) Blumler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확산이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제4시대'를 열었다고 진단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정보량의 폭발적 증가, 과거의 피라미드형 모델('정치→미디어→수용자')의 해체,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자로서의 부상, 제도적 층위와 풀뿌리 층위로 이루어진 이중적 정치 커뮤니케이션 생태계의 출현을 그 특징으로 제시한다. Blumler, J. G., "The Fourth Age of Political Communication," *Politiques de communication*, No 6(1), 2016, pp.19-30.
 - 2) Williams와 Delli Carpini는 20세기 중후반에 자연화된 뉴스와 오락의 구별이 근본적으로 침식되었으며, 어떤 장르도 정치적·사회적 세계에 대한 공적 이해의 원천으로서 자동적으로 더 적합하거나 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정보가 오락, 코미디, 리얼리티 프로그램 등 비전통적 형식을 경유하여 유통되며, 미디어의 정치적 함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와 정치 양자에 대한 관념의 확장이 요구된다고 논한다. Williams, B. A. & Delli Carpini, M. X., *After Broadcast News: Media Regimes, Democracy, and the New Information Environ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특히 4장 "Political Reality, Political Power, and Political Relevance in the Changing Media Environment"를 참고.
 - 3) 인포테인먼트를 정보와 오락의 경계를 횡단하는 현상으로 파악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Delli Carpini, M. X. & Williams, B. A., "Let Us Infotain You: Politics in the New Media Environment," in Bennett, W. L. & Entman, R. M. (eds.), *Mediated Politics: Communication in the Future of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p.160-181을 참고. 이들은 인포테인먼트가 뉴스는 진지해야 하고 오락에는 사회정치적 중요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통념을 문제화하는 경계 횡단(border-crossing)의 현상이라고 규정한다. 인포테인먼트의 글로벌 확산에 대해서는 Thussu, D. K., *News as Entertainment: The Rise of Global Infotainment*, London: SAGE, 2007도 참고.

재의 상태를 가리키지 않는다. 탈정치화는 어떤 쟁점이 더 이상 인간의 선택 여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어진 조건이나 관리의 대상으로 옮겨지면서, 직접적인 정치적 판단의 대상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과정을 가리킨다.⁴⁾ 미디어와 탈정치화의 관계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포스트정치적 질서를 둘러싼 논의 속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때 미디어는 정치적 내용을 증계하는 중립적 장치로서만이 아니라, 정치적 쟁점을 특정한 형식과 논리 속에서 재구성함으로써 공적 심의의 조건을 변형시키고 탈정치화가 수행되는 구조적 환경으로 이해된다.⁵⁾ 특히 미디어 환경의 급전이 디지털 미디어의 가속성과 확장성

4) 정치를 우연성(contingency), 즉 또 다른 결정 가능성의 영역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Hay의 논의에 기댄 것이다. Hay는 정치적인 것의 핵심적 특징으로 선택(choice), 행위 역량(capacity for agency), (공적) 속의((public) deliberation),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을 제시하며, 어떤 쟁점이 이러한 특징을 잃어버리고 필연이나 관리의 영역으로 이동할 때 탈정치화가 발생한다고 본다(Hay, C., *Why We Hate Politics*, Cambridge: Polity Press, 2007, pp.65-78). 그는 정부의 영역, 공적 영역, 사적 영역, 필연의 영역이라는 네 영역 사이에서 쟁점이 이동하는 과정으로 정치화·탈정치화를 유형화한다(ibid., pp.79-82). Wood & Flinders는 이 프레임워크를 확장하여 탈정치화의 세 가지 측면, 즉 정부적(governmental) 탈정치화, 사회적(societal) 탈정치화, 담론적(discursive) 탈정치화를 식별한다. 이 가운데 담론적 탈정치화는 특정 쟁점을 둘러싼 논의가 기술 관료적이거나 관리적인 것으로 변환되어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담론에서 사라지는 과정을 가리키며, 제도나 행위자가 아닌 언어와 관념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다른 두 유형과 구별된다. Wood, M. & Flinders, M., "Rethinking Depoliticisation: Beyond the Governmental," in Flinders, M. & Wood, M. (eds.), *Tracing the Political: Depoliticisation, Governance and the State*, Bristol: Policy Press, 2015, pp.21-46.

5) 미디어화 논의는 정치를 포함한 사회의 여러 영역이 미디어 논리를 채택하고 그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 Mazzoleni & Schulz는 미디어화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제기하면서, 정치가 대중 매체에 종속되는 과정을 분석하였고(Mazzoleni, G. & Schulz, W., "Mediatization of Politics: A Challenge for Democracy?," *Political Communication* Vol. 16, No. 3, 1999, pp.247-261), Strömbäck은 이러한 미디어화 과정을 네 단계로 정리하였다. 그에 따르면, 미디어는 정보의 주된 원천이 되는 데서 출발하여, 정치 제도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속에서 체감됨에 따라, 미디어와 탈정치화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도 점차 플랫폼의 고유한 작동 조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었다. 플랫폼은 단순한 콘텐츠 유통 경로에 그치지 않고, 실시간 상호작용과 사후 편집, 알고리즘적 배분과 이용자 참여가 결합된 독자적인 발화 환경을 구성하기 때문이다.⁶⁾

한국의 경우, 플랫폼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소통에 대한 연구는 주로 유튜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정치 유튜브 채널에서 정파성이 발현되는 방식, 디지털 포퓰리즘과 정치 팬덤의 형성, 극우 유튜브 채널의 혐오 담론 구성 전략 등이 분석되면서, 플랫폼이 정치적 양극화와 혐오의 확산에 기여하는 메커니즘은 상당 부분 규명되었다.⁷⁾ 그러나 이들 연구는

정치 논리를 압도하는 미디어 논리를 형성한다. 최종적으로는 정치 행위자가 미디어 논리를 내면화하여 정치와 미디어의 구별 자체가 소멸하는 단계에 이른다. 즉 미디어화의 과정에서 핵심적 질문은 미디어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에서 정치의 미디어로부터의 독립으로 전환된다(Strömbäck, J., "Four Phases of Mediatization: An Analysis of the Mediatization of Politic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 · Politics* Vol. 13, No. 3, 2008, pp.228-246). 박홍원은 포스트민주주의 및 포스트정치화 논의에서 탈정치화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구성하는 핵심 기제로 이해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정치의 미디어화와 연결하여 미디어가 탈정치화의 기제로 작동하는 양상을 검토한 바 있다(박홍원, 「탈정치화 시대의 미디어와 민주주의」, 『한국방송학회』 제30권 5호, 한국방송학회, 2016, 5-41쪽).

- 6) 플랫폼이 단순한 콘텐츠 유통 경로가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의 조건 자체를 재편하는 독자적인 매체적 구조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van Dijck, J., Poell, T. & de Waal, M., *The Platform Society: Public Values in a Connective Wor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8을 참고.
- 7) 송현주·신승민·박아란은 특정 이념 성향의 유튜브 채널만을 시청하는 행태가 상대 진영에 대한 편향된 인식과 정서적 호감도의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면서, 정치 유튜브 채널의 시청이 이념적·정서적 양극화의 기제로 기능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송현주·신승민·박아란, 「유튜브는 사용자들을 정치적으로 양극화시키는가?: 주요 정치 및 시사 관련 유튜브 채널 구독자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현대정치연구』 제14권 2호,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1, 5-34쪽); 정금희는 개인 정치 유튜브 채널의 운영 과정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정파성이 채널의 발생에서 성장, 위기, 유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핵심 동력으로 작동하며, 특히 이용자 공동체의 집단 정파성

대체로 정치성을 명시적으로 표방하는 채널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으며, 정치적 의미가 비정치적(apolitical) 형식을 경유해 조직되는 양상에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해 왔다. 따라서 정보와 오락의 형식을 결합하는 가운데 비정치적 포지셔닝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인포테인먼트 채널에서 정치적 의미가 어떻게 변환·유통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환이 윤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국면에서 어떤 한계를 드러내는지를 묻는 작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제, 금융을 기반으로 달리는 방송! 정치는 아주, 전혀, 대단히, 모릅니다”라는 모토를 내건 ‘슈카월드’는 플랫폼 기반 해설 채널에서 정치적 사안이 어떻게 탈정치적으로 재배열되는지를 검토하기에 적절한 사례다.⁸⁾ 해

이 예코 챔버 효과를 강화하는 양상을 밝혔다(정금희, 「정치 유튜브 개인 방송에서 ‘정파성’은 어떻게 발현되는가?」, 『언론정보연구』 제58권 3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21, 46-109쪽); 김종우는 12.3 비상계엄 이후 극우 유튜브 채널이 인권의 언어를 차용하는 가운데 그 규범적 내용을 비워내고 자신들의 정파적 의제를 정당화하는 자원으로 동원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한국의 극우 포퓰리즘과 인권: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 극우 유튜브 채널과 퇴행적 인권 담론」, 『인권연구』 제8권 1호, 한국인권학회, 2025, 39-78쪽); 장우영·송경재는 유튜브 시사·정치채널이 유사 저널리즘의 형식을 취하면서 정파주의의 첨병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혐오와 분열 표현을 동원하여 정당정치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진단한다(장우영·송경재, 「유튜브와 당파적 분열: 유튜브 시사·정치 채널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34권 1호, 대한정치학회, 2026, 133-165쪽). 이 외에 정파적 대립을 축으로 하지는 않지만 플랫폼 환경에서 혐오 담론이 확산되는 양상에 주목한 연구로 이슈 콘텐츠 채널의 서사 구조와 수사적 전략에 대해 비판적 담론분석을 수행하여 여성혐오 담론을 정당화하는 방식을 규명한 이지형·김민정, 「유튜브 ‘사이버 렉카’ 채널의 여성혐오 담론 구성 전략: 비판적 담론분석에 기반한 고찰」, 『미디어, 젠더 & 문화』 제40권 2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5, 47-80쪽이 있다. 다른 한편, 특정 채널의 분석에 한정하지 않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 전반에서의 정치적 양극화와 포퓰리즘의 발생 구조를 분석한 연구로는 송정민·김범수·이병재, 「탈진실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생산, 유통, 소비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32권 2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3, 91-124쪽; 도묘연,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특성, 미디어 이용, 포퓰리즘 성향의 영향구조」, 『한국정당학회보』 제21권 1호, 한국정당학회, 2022, 81-117쪽 참고.

8) 이 모토는 현재 확인 가능한 공개 자료상 적어도 2019년 11월 5일 이전부터 사용된 것

당 채널은 복잡한 국내의 현안을 경제·금융의 문법으로 해석하여 대중에게 전달하는 특유의 해설 방식을 구축함으로써, 360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층을 확보하고 일정한 신뢰를 획득한 대형 플랫폼 채널로 성장해 왔다.⁹⁾ 이때 다소 과장된 수사로 표방되는 '비정치적' 태도는 단순한 겸양의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거리를 둔 중립적 관찰자라는 인상을 부여하고,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해설의 권위를 뒷받침함으로써 채널의 신뢰성을 조직하는 핵심 조건이 된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신뢰의 형식이 플랫폼 환경에서 일종의 신뢰 자본으로 축적되는 과정에 주목한다.¹⁰⁾ 다시 말해 '슈카월드'를 대표적 사례로 삼아, 정치적 사

으로 보인다. 2019년 11월 5일 게시된 블로그 글이 당시 '슈카월드' 유튜브 채널 설명을 인용하며 "경제, 금융을 기반으로 달리는 방송! 정치는 아주. 전혀. 대단히. 모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럽고 재미있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문구를 제시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기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소개 문구가 확인된다(JaeJae, <[유튜브 채널 추천-12] 슈카월드! 경제, 뉴스, 시사 유튜브! 재미있는 입담은 덤!!>, 2019.11.05., <https://jae-jae.tistory.com/archive/20191105>. (접속일: 2026.04.15.); 정석준, <'백만 유튜버의 위엄'...라디오스타 출연, 슈카 누구?>, 『아주경제』, 2021.01.07., <https://www.ajunews.com/view/20210106174429238>. (접속일: 2026.04.15.) 다만 유튜브는 채널 소개글의 변경 이력을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최초 게시일은 확정할 수 없다. 해당 모토는 이 글이 분석 대상으로 한 시기에는 채널 소개글로 게시되어 있었으나, 2025년 9월 29일부로 변경되었다. 모토 변경이 갖는 함의에 대해서는 맺음말에서 다시 논한다.

9) '슈카월드'에 대한 연구로는 조준혁, 「경제 정책 담론 형성에서 유튜브의 역할: '슈카월드' 금투세 콘텐츠와 댓글의 토피모델링 분석」, 『콘텐츠와산업』 제7권 3호, 2025, 15-21쪽. 이 연구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콘텐츠와 댓글을 대상으로 특정 경제 정책에 대한 이용자 반응의 주제 분포를 분석한 것으로, 채널의 발화 전략이나 스트리머의 비정치적 포지셔닝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10) 이 글에서 '신뢰 자본'은 플랫폼 채널과 이용자 사이에서 형성된 신뢰가 반복적 시청, 친밀감, 중립성의 인상, 설명 능력 등을 통해 누적되고, 이후 채널의 발화 권위와 위기 대응에 동원될 수 있는 자원으로 축적되는 양태를 가리키는 분석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는 사회 자본을 행위자가 특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적 자원으로 파악한 콜먼의 논의와 연결된다. 콜먼은 사회 자본이 행위자 내부가 아니라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구조 속에 존재하며, 의무와 기대, 사회 구조의 신뢰성, 정보 채널, 규범

안을 직접적인 정치 평가의 언어로 전면화하지 않으면서도 소비 가능한 현안으로 재배열하는 플랫폼 해설 담론의 작동 방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유튜브 ‘슈카월드’ 채널이 복수의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과 연동된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슈카’의 비정치적 포지셔닝이 플랫폼 발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유지되고 조정되며, 그 과정에서 탈정치화의 효과가 어떤 방식으로 조직되고 동요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 글의 분석은 세 층위로 구성된다. 우선,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업로드된 영상 1,724편의 주제 분포와 섬네일을 검토함으로써, 채널 전반의 콘텐츠 구성과 표상 방식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2025년 6월 15일 송출된 라이브 스트리밍 중 ‘LA 시위’ 관련 에피소드를 대상으로, 이러한 구조적 조건이 구체적 발화 장면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 원본과 유튜브 업로드 판본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사후적 편집을 통해 이루어지는 발화의 조정 양상과 그 함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등을 그 주요 형태로 제시한다. James S. Coleman,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 Supplement, 1988, pp.S98-S104. 또한 퍼트남은 신뢰와 호혜성, 네트워크를 사회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자본의 핵심 요소로 논의한다. 로버트 D. 퍼트남, 『나 홀로 불링: 사회적 커뮤니티의 붕괴와 소생』, 정승현 역, 페이퍼로드, 2009, 17쪽.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플랫폼 채널과 이용자 사이의 관계로 옮겨, 비정치적 포지셔닝이 채널의 신뢰를 누적적 자원으로 축적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2. '슈카월드'의 채널 구조와 탈정치화의 배열 원리

2-1. 데이터 수집과 주제 분류

'슈카월드'의 주제 구성을 정량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YouTube Data API(v3)를 활용하여 2018년 1월 12일부터 2025년 9월 15일까지 업로드된 총 2,039편의 영상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전수 수집하였다.¹¹⁾ 수집 항목은 업로드 날짜, 제목, 영상 길이, 조회수 등이며 주제 판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썸네일 이미지와 삽입 문구도 함께 확인하였다. 다만 채널 초기에는 라이브 스트리밍 전체본을 그대로 업로드하거나 영상 길이에 따라 단순히 분절만 하여 게시하는 방식이 혼재되어 있어 현재의 콘텐츠 형식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주제별 분할 업로드가 정착되어 분석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2019년 3월 19일부터 2025년 9월 15일까지를 실제 분석 구간으로 설정했으며, 발화 맥락의 차이를 고려하여 Shorts 형식의 영상과 3분 미만의 하이라이트 영상은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 최종 분석 대상은 총 1,724편으로 확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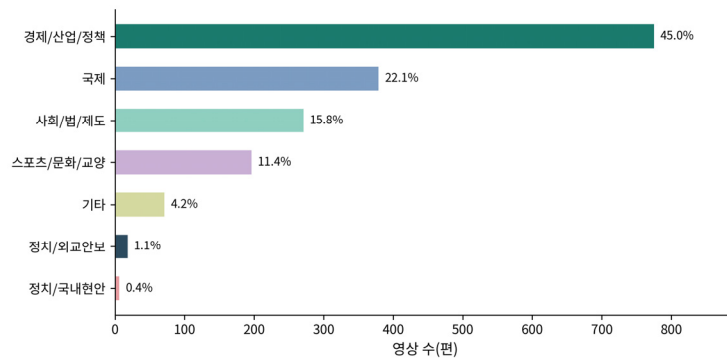
주제 분류는 내재적 기준과 외재적 기준을 상호 참조하여 진행하였다. '슈카월드'에서 직접 제시하고 있는 주제 범위는 "경제·시사·이슈·잡설" 정도로, 채널 자체적으로 주제 범주를 분명하게 가시화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유튜브의 '재생 목록'과 채널에서 기획한 '특집 모음'은 개별 영상을 특정 표제 아래 다시 배열하는 편성 장치로서, 채널의 자생적 주제 인식을

11) 이 글에서 다루는 '슈카월드' 영상 자료는 모두 '슈카월드'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syukaworld>)에 공개된 것으로, 영상마다 따로 URL을 밝히지 않고 본문에 '<영상 제목>, 게시 일자 혹은 타임코드'로 약기한다. 단, 일부공개 영상 등 접근 경로가 제한적인 자료는 별도의 각주로 URL을 제시한다.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이를테면 ‘연휴 특집’으로 재배치한 “국제 편”, “사회 편”, “기업 편”, “미국 대선 편”, “과학 상식 편”과 같은 묶음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동일한 층위에서 상호 배타적인 범주를 형성하지 않아, 업로드된 모든 영상에 일관되게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채널 전체의 구조적 특징을 살피기는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레저시 미디어의 뉴스 기획을 참조하여 경제·산업·정책, 국제, 정치·국내 현안, 정치·외교 안보, 사회·법·제도, 문화·교양, 기타의 대분류를 설정하고, 재생 목록과 특집 모음에서 확인되는 채널 내부의 범주화 관행을 참조하여 개별 영상을 배치하였다.¹²⁾ 즉 기존 뉴스 범주를 분석적 틀로 삼아 서로 다른 영상을 비교에 적합한 단위로 정렬하되, 실제 분류 과정에서는 채널이 특정 사안을 어떠한 맥락 속에 배치하는지를 함께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설계는 채널의 고유한 배열 논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불균질한 콘텐츠 묶음을 전체 층위에서 비교할 수 있는 분석적 단위로 재배치하기 위한 것이다.

12) 분류 절차는 귀납적으로 진행했는데, 일차적으로는 영상의 제목과 썸네일 문구를 바탕으로 내용을 파악하여 7개의 주제 범주로 분류하였고, 필요한 경우 영상을 직접 확인하여 해당 콘텐츠가 어떤 사안과 문제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하였다. 최종 분류 체계의 7개 범주와 그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제·금융·산업’은 국내의 경기, 금융·산업 구조, 시장 동향, 기업 활동 등 경제 구조의 변화와 작동 원리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다. ‘국제’는 세계정세, 국제경제, 지정학 일반을 다루는 범주로, 국제 분쟁, 무역 갈등, 글로벌 산업 동향 등 초국가적 이슈를 포함한다. ‘정치: 국내 현안’은 한국의 국회, 정부 정책, 선거, 부동산, 복지 등 국내 정치 제도 및 공공정책의 작동과 갈등을 중심으로 한 범주이며, ‘정치: 외교 안보’는 외교 협상, 무역 분쟁, 정상회담, 동맹 재편 등 국제 질서 속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다루는 콘텐츠에 해당한다. ‘사회·법·제도’는 법률 개정, 사회 구조 변화, 노동, 교육, 복지, 형사사법 등 제도적·규범적 영역의 변화를 다루는 콘텐츠이고, ‘문화·교양’은 스포츠, 문화, 예술, 역사, 과학 등 지식 교양형 콘텐츠를 포괄한다. ‘기타’는 채널 특집, 협업, 광고성 콘텐츠 등 정규주제 흐름 밖의 단발성·자체 기획 콘텐츠를 가리킨다.

2-2. 주제 분포와 경제적 해석 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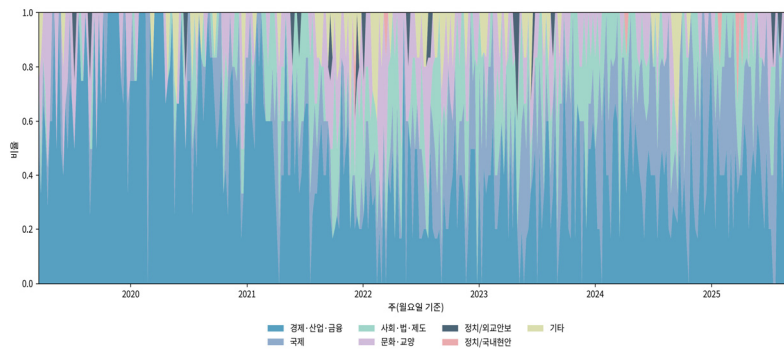


〈그림 1〉 전체 주제 분포

분류 결과 '슈카월드'의 콘텐츠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범주는 경제·산업·정책(45.0%)이며 국제(22.1%), 사회·법·제도(15.8%), 문화·교양(11.4%)이 그 뒤를 잇는다. 반면 정치·외교 안보(1.1%)와 정치·국내 현안(0.4%)은 합계 1.5%에 불과하다. 이 채널이 경제를 기반으로 출발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경제 범주가 절반을 넘지 않으며 국제와 사회 영역이 전체의 약 38%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실제 콘텐츠 구성이 협의의 경제 전문 채널에 머무르지 않음을 시사한다.

여기서 유의할 지점은 정치 범주의 낮은 비율을 곧바로 정치적 사안의 부재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분포의 다수를 차지하는 국제, 사회·법·제도, 경제 범주는 정치와 무관한 영역으로 분절하여 사고하기 힘들뿐더러, 실제 이와 같은 범주로 분류된 영상의 대다수에는 외교 갈등, 정권 교체, 입법과 정책 시행의 갈등, 제도 개편, 경제 정책의 효과처럼 정치적 판단과 분리되기 어려운 사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추석특집

다시 보기 슈카월드 국제편 모음 2부'(2024.09.16.)에는 인도 총선, 영국 정권 교체, 미국 대학가 시위와 트럼프의 반응, 영국-스페인 지브롤터 영토 분쟁, 중국-필리핀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북한-러시아 군사 동맹, 아르헨티나 밀레이 정부의 경제 구조 조정, 방글라데시 공무원 할당제 시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제'라는 영역 명 아래 권력의 정당성, 시민의 정치적 행위, 정책 결정의 효과, 국가 간 충돌과 같은 정치적 함의를 지닌 사안이 함께 배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치 범주의 낮은 비율은 정치적 함의를 지닌 사안이 국제, 사회·법·제도, 경제와 같은 인접 범주 속에서 제시될 가능성으로 주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열 방식의 지속성은 주제 구성의 시계열 변화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는 앞서 분류한 1,724편을 업로드 주 단위로 집계한 뒤, 각 주에 업로드된 영상 가운데 일곱 개 범주가 차지하는 구성 비율을 산출하여 시계열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주별 주제 구성 비율의 시계열 변화

주별 주제 구성 비율의 시계열 변화에서 경제 주제는 전 기간에 걸쳐 가

장 안정적인 비중을 점유하며, 채널의 기본 해석 축을 형성한다. 그러나 그 비중은 시기에 따라 상당한 폭으로 조정되어 왔다. 2021년 9월 경제 콘텐츠 중심의 서브 채널인 '슈카월드코믹스'(2025년 9월 1일 이후 '머니코믹스'로 명칭 변경)가 분화된 이후, 본 채널의 경제 비중은 평균 66.2%에서 35.9%로 약 30%p 감소하는데, 그 자리는 국제(11.7% → 27.0%)와 사회·법·제도(8.5% → 18.9%)로 채워진다. 즉 증시와 투자 정보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콘텐츠가 서브 채널로 이전되고, 본 채널은 경제를 기본 해석 코드로 유지한 채 국제·사회적 사안을 비중 있게 다루는 방향으로 재편된 것이다. 그 결과 '슈카월드'는 협의의 경제·금융 전문 채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해석 코드로 국내외의 다양한 현안을 설명하는 인포테인먼트형 성격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이러한 추세 변화와 함께, 시계열 분포는 외부 사건에 대한 단기적 반응의 양상도 보여준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직후, 해당 주의 국제 비중은 평소의 20%대에서 60%대로 급증하고, 2024년 10월 미국 대선 캠페인 후반부에는 국제 비중이 80%대까지 치솟는 등, 국외 정치·외교적 사건이 발생할 때 채널이 기민하게 반응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관찰된다.

주제 분포와 시계열적 추이는 '슈카월드'가 경제를 중심축으로 유지하면서도 국제적·사회적 현안의 변동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런데 이 인접 범주 안에 붙들린 사안의 상당수는 권력의 정당성이나 집합적 선택의 귀결, 그리고 그 결정이 달리 내려질 수 있었다는 우연성의 문제와 직결된 정치적 함의를 내포한다. 여기서 주목해 살필 부분은 그 정치적 쟁점의 성격을 경제, 국제, 사회의 문제 영역으로 이전하는 언어적 경로다. 영상의 표제와 섬네일은 사안을 특정한 질문, 행위자, 인과 관계 속에 압축해 배치함으로써, 정치적 쟁점의 해석 방향과 강도를 예비적으로

조직한다.

1,724편의 표제와 썸네일 문구를 전사하여 살펴본 결과, 정치적 함의를 지닌 사안이 경제적 변수와 시장 논리의 어휘로 재서술되는 사례가 다수 관찰된다. 여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군사·외교적 사안이 경제 효과의 어휘로 서술되는 사례에서 상이한 의미 영역 간의 인지적 낙차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력으로 전유된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 영상의 <전쟁 중에도 GDP 5만 달러를 달성한 비결>(2024.12.30.)이라는 표제는, 전쟁이라는 사태에 대한 속의의 방향을 결정, 수행, 피해, 종결과 같은 책임의 영역에서 경제 성과가 발생한 논리를 묻는 분석의 차원으로 옮긴다. “전쟁 중에도”라는 부사구는 이 책임의 무게를 양보의 형식 안에 압축해 GDP 달성의 배경 조건으로 처리한다. 동일 영상의 썸네일 속 “끝없는 전쟁 이스라엘 경제는 망했을까”라는 문구는 주의를 이스라엘 경제의 안위로 돌려 같은 사건에서 발생한 다른 행위자의 피해를 가시권 바깥에 둔다. 이와 같은 조정 속에서 전쟁은 인간이 결정하고 다르게 결정될 수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안에서 누군가가 거두어낸 성과의 외부 조건으로 처리된다. 유사한 양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룬 <전쟁으로 황재한 나라 노르웨이>(2023.02.06.)에서 “전쟁”과 “황재”의 의미적 충돌이 시청(클릭)을 유인하는 사례에서도 보인다.

둘째, 선거와 같은 공적 의사결정이 시장 변동의 어휘로 서술되는 사례에서, 사건의 의의는 그것이 발생시키는 시장 효과의 크기로 환산된다. 미국 대선과 주식시장을 등위 접속하여 제시하는 <코 앞에 다가온 미국 대선과 변동성이 확대되는 주식시장>(2020.11.02.)이라는 표제가 대표적이다. 대선은 “코 앞에 다가온” 임박한 사건으로 예고되는 한편, “변동성이 확대되는” 분석의 시야와 결합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하는 외부 조건으로 의미화된다. 즉 대선은 집합적 선택의 절차라기보다 투자자가 대비해

야 할 외부 충격의 발생원으로 위치 지어진다. <5년에 한 번 오는 큰 시장? 대선 테마주와 전설의 이화공영>(2021.07.06.), <10배는 기본, 선거 때마다 오는 테마주>(2024.01.03.) 등도 한국과 미국의 대선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투자 기회와 시장 변동의 계기로 전환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셋째, 외교·통상 영역의 사안은 정책을 발신하는 주체와 그 파급 효과에 대응하는 행위자 사이의 비대칭적 구도 속에서 서술된다. 미·중 통상 갈등을 다룬 영상의 <중국은 치킨게임, 미국은 관세 전쟁>(2024.12.05.)이라는 표제와 “미국발 관세 전쟁, 한국 기업의 미래는?”이라는 섬네일 문구가 이를 잘 보여준다. 표제는 갈등의 두 축을 중국과 미국으로 병렬하지만, 섬네일은 “미국발”이라는 표현을 통해 사태의 발신지를 미국으로 초점화하고,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위치에 “한국 기업의 미래”를 놓는다. 이때 통상 갈등은 다층적 행위자가 개입하는 협상과 조정의 과정이 아니라, 자국 행위자가 적응해야 할 외부 충격의 형태로 맥락화된다. <유가를 반토막 내겠다니 트럼프, 다급한 사우디>(2025.02.13.), <캐나다 25%, 멕시코 25%, 한국은 기다려>(2025.02.04.), <대한민국에 관세 25%를 통보한 트럼프>(2025.07.14.) 등의 사례에서도 정책 발신 주체의 결정과 발화는 다른 국가의 대응 위치를 정렬하는 좌표로 작동한다. 특히 이 비대칭적 구도에서 정책 발신 주체의 자리는 반복적으로 미국 또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과 발화로 채워지며, 미국 정세 역시 기업과 시장이 대비해야 할 외부 변수로 제시된다. 같은 부류의 비대칭 구도는 상대국이 치러야 할 비용의 크기로 나타나기도 한다. <미국에 750조 원 뜯긴 일본, 우리는 얼마일까?>(2025.07.28.)의 “미국에 750조 원 내고 관세 10% 낮춘 일본”이라는 섬네일 문구에서, 통상 협상은 거액을 치르고 관세 인하를 얻는 등가교환으로 축소된다. 또한 “우리는 얼마일까”라는 표제 속 물음은 한국을 같은 섹터의 좌표 위에 세우고, 협상의 정치적 쟁점을 지불해야 할 액수로 치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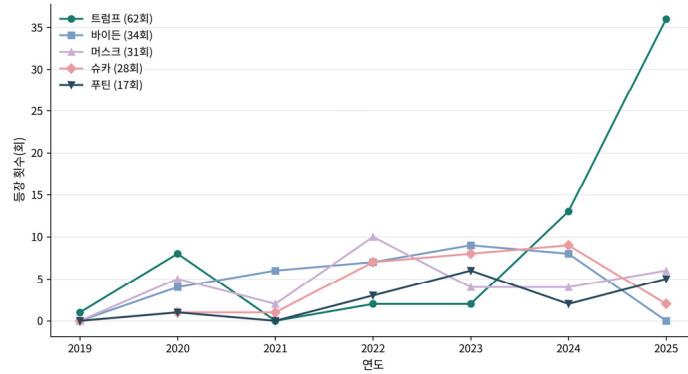
한다. 이처럼 외교·통상 사안이 고착된 위계 구도 속에서 거듭 서사화될 때, 정치적 응답의 가능성은 이미 발신된 결정의 파급을 계산하고 관리하는 차원으로 좁혀진다.

이러한 사례들은 ‘슈카월드’가 정치적 사안을 단순히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제적 의미 체계 안에서 일관되게 재서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쟁은 경제적 지속 가능성의 문제로, 선거는 시장 변동과 투자 기회의 문제로, 외교·통상 갈등은 외부 변수에 대한 대응의 문제로 이전된다. 그 가운데 정치적 쟁점은 권력의 정당성과 집합적 선택의 책임을 묻는 언어로부터 멀어져, 진단하고 예측하며 관리하는 대상으로 환원된다. ‘슈카월드’의 탈정치화는 정치적 사안을 경제적 설명 가능성의 질서 안에 편입함으로써, 공적 속고의 차원이 점진적으로 후퇴하는 단면을 드러낸다.

2-3. 인물 서사화와 트럼프의 기호화

정치적 사안의 재서술은 제목과 섬네일의 언어적 구성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 절에서는 업로드 영상 섬네일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의 빈도와 분포를 분석하여, 정치적 사안이 인물 중심의 시각적 기호로 조직되는 양상을 살펴본다. 전체 분석 대상 1,724편 가운데 314편의 섬네일에서 실존 인물이 확인되었으며, 중복을 제외하면 총 164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인물 섬네일은 채널 초기부터 일정한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2022년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2025년에는 74편에 이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인물이 등장하는 빈도의 증가만이 아니다. 복수의 인물이 함께 배치되는 다인 섬네일의 비율 역시 빠르게 높아진다. 다인 섬네일은 2019년 3편에 불과했으나 2025년에는 24편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82편의 다인 섬네일 가운데 트럼프가 포함된 것이 29편으로 35%를 차지한다.



〈그림 3〉 섬네일 등장 빈도 상위 5인의 연도별 추이

다인 섬네일의 기능은 관련 인물을 병치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퇴장하는 바이든, 미소 짓는 트럼프>(2024.07.22.), <트럼프 vs 해리스, 대선 토론 결과>(2024.09.17.), <머스크 vs 트럼프 웅장한 키보드배틀>(2025.06.10.)과 같은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다인 섬네일은 갈등 구도, 승패 예측, 권력 이동과 같은 서사적 긴장을 한 화면 안에 응축하는 시각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는 사건을 제도, 법률, 정책 구조의 차원에서 제시하기보다, 인물들 사이의 관계와 드라마로 번역하는 방식이 채널의 주요 수사 전략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물 서사화의 구조 속에서 트럼프가 특별한 분석적 의미를 갖는 것은 단지 등장 빈도가 가장 높기 때문만은 아니다. 바이든(34회), 머스크(31회), 푸틴(17회) 역시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이들 모두 하나의 고정된 주제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매개적 기능을 수행한다. 바이든은 행정부 정책과 시장의 연결 고리를 설명하는 제도적 얼굴로, 머스크는 경제, 기술, 문화 영역을 가로지르는 아이콘으로, 푸틴은 지정학적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을 드러내는 상징적 인물로 각각 활용된다. 그중에서도 서로 다

른 해석 코드가 한 인물 안에서 가장 집약적으로 교차하는 경우는 트럼프에서 확인된다. 이 점은 ‘슈카월드’ 채널이 트럼프의 발화와 행위를 선택적으로 인용하고 재배치하는 편집 방식을 검토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트럼프 표상에서 확인되는 집약적 교차는 의미작용의 세 층위로 나누어 살펴 수 있다.¹³⁾ 정치적 사안의 의미론적 내용, 정치적 행위자의 기호적 표현, 그 인물의 발화 형식이 그것으로 각각 경제적 번역, 캐릭터화, 권위적 발화에 대응한다.

이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확인되는 것은 정치적 사안이 경제의 언어로 번역되는 내용 층위의 변환이다. “트럼프형, 유가의 목줄을 쥐다”(〈유가에 목줄 잡힌 중국과 함정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 2019.09.25.)라는 섬네일은 이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채널은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관련 발언을 채집하여, ‘유가’라는 경제 변수와 ‘형’이라는 친밀한 호칭 사이에 재배치한다. 정치적 권력의 행사는 경제적 인과의 언어로 전환되는 동시에, ‘형’이라는 호칭을 통해 권위적 행위자는 친근한 캐릭터로 바뀐다. 하나의 섬네일 안에서 정치, 경제, 캐릭터 드라마라는 세 겹의 번역이 동시에 수행되는 것이다. “관세 전쟁 시즌2를 시작~~~~하겠습니다!”(〈대한민국에 관세 25%를 통보한 트럼프〉, 2025.07.14.)라는 섬네일 문구는 단순히 과장된 구어체가 아니라,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송출되는 e스포츠 중계 문화에서 반복적으로 유통되어 온 개막 선언의 밈적 문법을 호출한다. 그 결과 한국에 대한 관세 25% 부과라는 통상 정책은 엔터테인먼트 프랜차이즈의 언어, 곧 ‘시즌2’라는 프레이밍 안에서 서술되며, 정치적 위협은 대형

13) 분석 구간(2019.03.19.~2025.09.15.)에서 트럼프(별칭 포함)가 표제, 섬네일 문구, 섬네일 인물 가운데 하나 이상에 등장하는 영상은 69편이다. 이 글은 이 영상의 표제와 섬네일 텍스트를 검토하여 세 층위의 반복 양상과 전형적 사례를 귀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벤트의 개막 장면이나 연속극의 다음 회차처럼 제시된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라는 인물은 유희적 호칭과 시각적 패러디를 거침없는 캐릭터로 구성된다. “트황상 vs 시황제, 관세가 시가냐”(〈145% vs 125%, 관세 멸망전 시작〉, 2025.04.14.)와 같은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미중 관세 전쟁이라는 국제·정치·경제적 갈등은 고대 중국 황제를 연상시키는 시각적 코드 속으로 투사된다. ‘트황상’과 ‘시황제’라는 조어는 정치 지도자의 성명에 황제라는 역사적 기호를 결합함으로써 현실 정치의 행위자를 유희적 캐릭터로 변모시킨다. 이는 기존 발언을 단순히 다른 맥락에 배치하는 차원을 넘어, 채널이 독자적인 시각, 언어적 기호를 창출하여 정치적 대립을 게임과 같은 대결 구도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형님!!’ 앞다투어 트럼프에게 달려가는 사람들, 기업들, 국가들〉(2024.12.17.)의 섬네일 역시 같은 맥락에 놓인다. 취임을 앞둔 트럼프에게 각국 정상과 기업인이 접근하는 외교적 역학은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위계 문화를 상징하는 ‘형님’이라는 호칭을 경유하여 사적이고 인격화된 충성 서사로 다시 쓰인다.

더 나아가 정치적, 사법적 사안은 시장 논리에 기초한 상업적 수사나 엔터테인먼트적 코드를 통해 재맥락화되기도 한다. “트럼프 머그샷으로 돈 버는 자유의 나라”(〈트럼프 체포 사진 공식 굿즈 출시, 짹통 단속 선언〉, 2023.09.15.)는 전직 대통령의 형사 기소라는 사법적 사건을 체포 사진의 상업적 활용이라는 아이러니로 포착한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위기는 시장의 수익 기회로, 사법적 절차는 문화적 흥밋거리로 각각 번역된다. “미국 시민권 단돈 70억 원에 팝니다”(〈왜 돈 안 받고 이민을 받으니까?〉, 2025.03.11.)라는 섬네일도 유사한 구조를 공유한다. 이민 정책이라는 민감한 정치적 의제는 시민권의 가격표라는 소비주의적 어휘로 치환된다. 사안의 실질적인 심각성은 유지될지라도 발화의 레지스터가 정치의 영역

을 벗어나 시장과 오락의 영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 사례에서 공통되게 확인되는 것은, 채널이 트럼프의 발화와 행위를 인용하면서 그 정치적 맥락을 다른 해석 코드 안에 삽입하는 편집적 실천이다. 정치적 권력은 경제 변수로, 국제 갈등은 캐릭터 대결로, 제도적 결정은 상품 교환이나 시즌제 오락물의 문법으로 번역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번역이 우연한 수사가 아니라, 트럼프라는 인물을 매개로 반복 수행되는 배열 원리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원리는 채널 내부에만 머물지 않는다. ‘트황’, ‘트황상’, ‘트형’, ‘럼프형’, ‘도람푸형’ 등 트럼프를 지시하는 유희적 호칭들은 채널의 섬네일에서뿐 아니라 라이브 스트리밍의 채팅 공간에서도 광범위하게 유통된다.¹⁴⁾ 이 호칭들은 트럼프라는 정치적 인물을 밈적 캐릭터로 전환하는 집단적 실천의 산물이며, 채널의 편집 전략과 채팅 공중의 유희적 참여가 상호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편집적 실천의 메커니즘은 섬네일에 배치되는 트럼프 발화의 형식적 특성에서 더욱 선명하게 포착된다. ‘슈카월드’의 섬네일은 트럼프의 발언이나 정책적 행위를 명령과 단언이라는 권위적 레지스터로 응축하여 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코카콜라에서 액상과당을 빼라”(〈코카콜라 맛

14) Ryan M. Milner는 ‘4chan’과 ‘reddit’의 이미지 밈을 분석하면서, 이미지 매크로가 시각적 템플릿에 텍스트를 덧붙여 농담을 생성하고, 이러한 밈적 리믹스가 집단적 풍자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룰즈의 논리(logic of lulz)’를 타인의 불편이나 고통에 대한 거리화된 웃음이자, 유머와 적대를 결합해 논쟁의 내용과 톤을 바꾸는 트롤링의 논리로 파악한다. Milner, R. M., “Hacking the Social: Internet Memes, Identity Antagonism, and the Logic of Lulz,” *The Fibreculture Journal* Vol. 22, 2013, pp.65-66. 한편 Whitney Phillips는 트롤적·밈적 실천이 주류 문화의 일탈이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문화적 논리를 극단화한 것이라고 본다. 그에 따르면 인터넷 환경에서 현실의 사건은 공유, 리믹스, 수익화 가능한 콘텐츠로 전환되고, 온라인 콘텐츠는 원래의 정치적·역사적 맥락에서 쉽게 분리되며, 실제 인물 또한 플랫폼 유통 과정에서 ‘허구화된 대상(fictionalized things)’으로 축소될 수 있다. Phillips, W., *This Is Why We Can't Have Nice Things: Mapping the Relationship between Online Trolling and Mainstream Culture*, MIT Press, 2015. pp.115-120.

을 바꾼 트럼프의 한 마디>, 2025.07.24.), “미국 약 가격 즉시 30%~80% 낮춰라”(〈날벼락을 맞은 미국 제약사들>, 2025.06.27.), “젤렌스키는 백악관에서 나가라”(〈파국으로 끝난 우크라이나-미국 정상회담>, 2025.03.03.), “너, 51번째 주가 되어라”(〈영토 확장을 꿈꾸는 신(新) 미국식 제국주의>, 2025.01.17.)와 같은 문구들은 언표 차원에서 명령과 단언이라는 권위적 발화의 형식을 유지한다. “트럼프 “기후변화는 사기다””(〈무너진 기후변화는 돌이킬 수 있는가>, 2025.03.27.), “하버드는 더 이상 대학이 아니다”(〈하버드 대학과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2025.04.23.)와 같은 단정적 선언 역시 동일한 권위의 형식을 공유한다. 특히 “중국에 관세를 물려 미국 빚을 갚겠습니다!”(〈신박한 미국 대선 공약들>, 2024.08.19.)와 같은 문구는, 국가 부채 상황이라는 공적 재정의 과제를 관세라는 거래 수단으로 해결하겠다는 권위적 선언의 형식으로 압축한다. 여기서 공적 책임은 손익을 계산하고 처리할 수 있는 거래의 대상으로 환산된다.¹⁵⁾

이 문구들은 실제 발언의 직접 인용과 채널의 요약적 재구성을 가로지르며 강력한 언표 형식을 견지한다. 여기서 확인되는 공통된 특징은 권위적 언표행위의 외양을 유지하면서도 그 명령이 실현되는 구체적 맥락과 절차를 과감히 소거한다는 점에 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전제하는 권위의 형식을 과시적으로 빌려 오면서도, 그 내용의 과잉과 비현실성을 노출함으로써 명령으로서의 실질적 수행력은 유예한다. 채널은 이처럼 형식과 내용 사이의 간극이 벌어진 발화들을 선별적으로 채집하고 밈적 이미지와 유희적 맥락 속에 재배치한다. 이는 비판적 풍자라기보다 권위적 언표행위의 형식

15) 분석 구간(2025년 9월 15일) 이후에도 이러한 양상은 이어진다. “UN은 쓸모없다”(〈세계화의 시대는 가고, 각자도생의 시대가 온다>, 2025.10.01.) “한국 3,500억 달러 ‘현금 선불’로 내라”(〈3,500억 달러, 현금 지급 가능한가>, 2025.09.29.)나 “14억 원을 내면 미국 영주권을 드립니다!”(〈미국 영주권 비자, 트럼프 골드 카드 출시>, 2025.09.23.) 등이 그 예다.

을 반복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환하는 패스티쉬적 재연을 수행하는 것에 가깝다.¹⁶⁾ 정치적 긴장감은 권위적 형식의 반복을 통해 조성되지만, 정치적 판단은 내용의 과잉 속에서 유보되며, 시청자는 정치적 언어의 진지함을 비틀어 즐길 수 있는 심리적 거리를 확보하게 된다.

요컨대 ‘슈카월드’의 인물 섬네일은 단순한 시각적 장식이 아니라, 채널이 구조와 제도가 아닌 캐릭터화된 인물 중심의 구도로 세계를 조직하는 서사 전략의 일부다. 그중에서도 트럼프는 정치적 의미를 경제적, 국제적, 유희적 코드로 동시에 전환하는 압축 장치이자, 채널의 편집적 실천을 통해 권위의 패스티쉬적 재연이 수행되는 핵심적 결절점으로 기능한다. 정치적 의제를 분산하여 조직하는 채널 구조의 특징은 이처럼 트럼프라는 인물 기호를 경유하여 구체적인 수사적 실천으로 구현된다.

3. LA 시위 구간의 발화 구조와 탈정치화의 수행

정치적 사안을 경제적 해석 코드 속에 재배치하고, 유력 정치인을 기호화된 캐릭터로 가공하는 경향은 ‘슈카월드’ 채널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확

16) 여기서 패스티쉬는 제임슨이 패러디와 구분하여 설명한 의미에 가깝다. 제임슨에 따르면 패스티쉬는 특정한 스타일이나 매너리즘을 모방한다는 점에서 패러디와 닮아 있지만, 패러디가 지니는 풍자적 충동이나 조롱의 규범적 기준을 상실한 “중성적인 수행”이다. 그는 이를 “양식상의 가면”을 쓰고 “죽은 언어로 이야기하는” 행위이자, “유머 감각을 상실한 공허한 패러디”라고 비판한다. 프레드릭 제임슨, 송연승 역, 『포스트모더니즘과 소비사회』, 윤난지 엮음,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눈빛, 2025, 68-73쪽. 이 글에서 포착한 패스티쉬적 재연은 자신의 발화가 수용되고 유통되는 방식을 체득한 발화자가 플랫폼의 논리를 좇아 발화를 운용하는 가운데 빚어지는 구조적 효과에 가깝다. 다만 그 효과가 발화자의 인지 밖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식적 전략성과 구조적 효과를 가르는 경계는 분명하지 않다.

인된다. 이러한 배열 방식은 정치적 의미가 비정치적 형식과 유희적 표상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여준다. 아래에서는 개별 에피소드로 시선을 좁혀, 이러한 배열 원리가 실시간 발화의 조건 속에서 수행되는 양상과 더불어 그것이 긴장 속에서 조정되고 통합되는 국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라이브 스트리밍 기반 제작 구조

'슈카월드'의 콘텐츠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30분경, 약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진행되는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을 기반으로 제작된다. 주중에 업로드되는 개별 영상들은 라이브 방송분을 주제별로 분할하고 편집하여 재구성한 2차 산물이며, 따라서 사전에 독립적으로 기획된 완결된 텍스트라기보다 원본 발화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절취한 아카이브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제작 구조에서 스트리머의 해설은 고정된 텍스트를 전달하는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실시간의 조건 속에서 끊임없이 조직되고 조정되는 수행적 과정의 양상을 띤다. 방송은 준비된 자료와 즉흥적 설명이 결합된 형식을 취하며, 발화자는 그림판 위의 슬라이드를 활용해 설명을 이어가되 현장 상황에 맞춰 순서를 조정하거나 해석을 덧붙인다.

발화자의 위치 역시 이러한 수행적 조건의 일부를 이룬다. 발화자 '슈카'는 채권 트레이더 경력을 바탕으로 실무적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아재'로서의 자기 연출과 '잡썰'이라는 콘텐츠 프레이밍을 통해 자신의 발화가 권위적 논평의 형식으로 고정되지 않도록 한다. 이 상반된 요소의 결합은 전문성의 권위와 친밀감을 동시에 작동시키며, 채널의 신뢰 자본을 축적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특히 방송할 때마다 바꾸어 착용하는 우스꽝스러

운 모자는 ‘진지하게 듣지 말라’는 신호이자, 스스로 명명한 ‘방어막’으로 기능한다. “이런 모자를 쓰고 얘기하고 있는데 설마 진지하게 들으시진 않으시겠지”라는 메타화행적 표지가 드러내듯이,¹⁷⁾ 모자는 발화의 키(key)를 유희적 해설의 방향으로 조정하고 발화자의 책임을 사전에 완화한다. 이로써 ‘슈카’는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 해설자와 수다꾼 사이에 놓인 완충적 발화 위치에서 민감한 사안을 다룰 수 있게 된다.

실시간 채팅 로그는 이러한 발화가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환경적 조건으로 기능한다. 유튜브, 치지직, 트위치 등 복수의 플랫폼이 연동되어 유입되는 시청자 반응은 해설의 직접적인 내용 구성에 개입하기에 앞서, 자료 전환의 속도나 설명의 완급, 방송의 집중도와 같은 운영 리듬에 간접적인 압력을 가한다.¹⁸⁾

라이브 방송 이후 수행되는 편집 과정 역시 원본 발화의 순서와 리듬을 대체로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유튜브 채널은 개별 영상의 단순 집합을 넘어 라이브 발화의 흐름을 사후적으로 분절하여 아카이브하는 장치로 작동하게 된다. 이 같은 라이브와 아카이브의 혼종적 형식은 동일한 발화가 실시간 방송과 사후 편집이라는 두 층위에서 어

17) 슈카는 정부 정책을 소개한 콘텐츠로 ‘어용 유튜버’라고 비판받은 상황을 언급한 뒤, 정치적 편 가르기의 문제를 다루기 직전, 모자를 쓰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이렇게 그, 치열한 얘기를 했을 때는 모자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우습게 보이면서 재는 뽀소리 한다고 생각하죠. 이런 모자를 쓰고 얘기하고 있는데 설마 진지하게 들으시진 않으시겠지. 유원지에 온 컨셉입니다. 유원지 컨셉이기 때문에 (...) 자, 요런 모자를 쓰고 얘기하기 때문에, 설마 그 진지하게 듣지 않으리라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방어막입니다, 이게. 방어막 썰드 치고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슈카월드, <편 가르는 사회>(일부공개 영상), YouTube, 2023.04.16. 10:26-10:53 <https://www.youtube.com/watch?v=Mqrh61muyhY&t=630s>. (접속일: 2026.04.14.). 해당 영상은 편집본의 형태로는 유튜브에 게시되지 않았다.

18) 2025년 기준, 라이브 스트리밍 평균 동시 시청자 수는 ‘유튜브’ 약 4만 3천 명, ‘치지직’ 약 1,300명, ‘트위치’ 약 175명 수준이다.

떻게 유지되고 변형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분석적 토대를 제공한다.

3-2. 분석 대상과 방송의 맥락

이 글에서는 2025년 6월 15일 송출된 '슈카월드' 라이브 스트리밍 중 'LA 시위' 구간을 에피소드 수준의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해당 방송분은 2025년 6월 18일 <미국 전역으로 번진 LA 시위>라는 제목으로 편집되어 업로드되었는데, 두 판본 사이에 존재하는 약 10분의 분량 차이는 라이브 발화가 사후 편집을 거치며 압축되고 조정되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해당 에피소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채널의 탈정치적 배열 원리가 가장 첨예하게 시험받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슈카월드'는 정치적 사안을 경제적 해석 코드로 재서술함으로써 비정치적 포지셔닝을 유지해 왔으나, 군 병력의 시위 진압이나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과 같은 사안은 시장 논리의 어휘만으로 포섭하기에 한계가 명확하다. 정치적 폭력과 통제가 전면에 노출되는 국면은 채널의 경제적 번역 장치가 작동하는 임계를 확인하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동원되는 대안적 수사 장치를 관찰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

방송의 시기적 맥락 역시 이러한 문제를 부각한다. 해당 방송은 국내적으로는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이 치러진 직후였고 국제적으로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건은 발화자의 탈정치적 프레임과 시청자의 정파적 반응 사이에 긴장이 발생할 가능성을 한층 높인다. 이 에피소드는 정보 전달의 형식을 통해 정치적 판단과 거리를 두려는 해설자의 위치가 구체적인 발화 전개 속에서 얼마나 견고하게 유

지되거나 흔들리는지를 검토하기에 적합한 사례다.

3-3. 서사 구조와 수사적 장치

‘슈카월드’의 라이브 스트리밍은 개별 주제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화의 리듬과 정동의 흐름을 조율하는 일정한 서사적 배열에 따라 이루어진다. 정치적 민감성이 높은 주제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특정한 위치에 배치되며, 발화의 전후 맥락을 통해 정동적으로 완충된다. 분석 대상인 ‘LA 시위’ 구간은 약 43분 분량으로 방송의 중후반부에 위치한다.¹⁹⁾ 해당 구간은 서론부(1:06:05-1:20:52), 본론부(1:20:52-1:42:33), 결론부(1:42:33-1:49:22)로 이어지는 세 단계의 명확한 구조를 보인다. 각 단계에서 발화자가 정치적 긴장을 처리하는 방식은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차이는 비정치적 포지셔닝이 수행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드러낸다.

서론부는 미군 퍼레이드와 트럼프 생일, ‘NO KINGS’ 시위의 확산, 민주당 의원 총격 사건 등을 연속적으로 배치하면서, LA 시위를 둘러싼 정치적 지형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군사 퍼레이드는 미 육군 창설 250주년

19) ‘LA 시위’ 구간은 약 3시간 10분에 걸친 라이브 스트리밍 전체의 중후반부에 배치되어 있다. 해당 방송은 오프닝(00:00:00-00:03:59) 이후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토니상 수상을 다룬 ‘세계를 울킬’(00:03:59-00:35:32), 이스라엘-이란 충돌과 중동 전면전 가능성을 다룬 ‘다시 전쟁인가?’(00:35:32-01:06:05), 이 글의 분석 대상인 ‘LA 시위’(01:06:05-01:49:22), 한국에서의 계란 가격 상승을 다룬 ‘계란 너마저..’(01:49:25-02:39:39), CNN 시청률 하락과 FOX 반등을 다룬 ‘위기의 CNN’(02:39:39-03:08:53), 클로징(03:08:53-03:09:45)의 순서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LA 시위’는 중동 긴장이라는 국제 안보 이슈 뒤에 이어지지만, 곧바로 계란 가격 상승이라는 일상적 경제 주제로 전환된다. 따라서 해당 구간은 정치적 긴장이 높은 사안이 라이브 전체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배치되고 완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

이라는 공식적 명분을 갖지만, 발화자는 행사의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과 겹친다는 사실을 부각하면서 퍼레이드의 의미를 재구성한다. “해피 벌스데이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러면서 마치 왕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1:11:06)라는 발화에서 드러나듯이, 군사적 의례는 권위주의적 통치의 시각적 표현으로 독해될 수 있는 것이다. 6,600명의 군인, 150대의 차량, 50대의 헬리콥터가 동원된 퍼레이드가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축하의 맥락과 결합되는 장면은, 민주 공화국의 군대가 흡사 군왕제적 권위를 과시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는 함의를 생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배면의 의미는 발화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지적되지 않는다. 대신 미 정계의 비판적 시각이 “야, 이거 니들, 야, 무슨 영국 국왕 찰스의 생일도 아니고, 군 퍼레이드 하면 어떡해”(1:12:01)와 같이 다소 과장된 재연을 통해 제시된다. 또한 발화자는 이를 “불충한 생각들”(1:11:48)로 위치시키면서, “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1:11:50)라며 부정의 태도 또한 희화적으로 환기한다. 즉 권위주의에 대한 우려는 전달되지만, 발화자의 입장은 유보되는 것이다. 동시에 발화자는 퍼레이드의 정치적 긴장을 다른 층위로 전이한다. 그는 미군 행렬의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를 짚어내며, “저 권위주의 국가들 못 따라가는”(1:08:45), ‘군기 빠진’ 모습에 주목하는가 하면, 남북전쟁 시대 복장을 한 병사들을 가리키며 “고생이… 많으시네요”(1:07:05)라고 동정을 표하기도 한다. 한국 남성 시청자 다수가 공유할 가능성이 높은 군 복무의 기억이 호출됨에 따라, 미국의 군사적 의례는 군 생활의 고충이라는 일상적 유머의 층위에서 감수하도록 정향된다. 이어 발화자는 국방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영부인 멜라니아의 표정에 초점을 맞추며, 트럼프의 권위주의적 행보를 ‘귀찮고’, ‘짜증 나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사화된 감상으로 포박한다.²⁰⁾ 중요한 것은 이때의 유희적 전이 속에서 정치적 긴장이 소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발화자는 권위주의적 스펙터클이라는 정치적 좌표를 수면에 올리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좌표 위에 어떠한 입장도 고정하지 않는 전략적 거리를 확보하게 된다.

이처럼 권력의 정당성을 둘러싼 상징적 대립의 맥락 속에 ‘NO KINGS’ 시위는 배치된다.²¹⁾ 군사 퍼레이드와 반퍼레이드 시위가 동일한 시간축 위에 병치됨으로써, LA 시위가 이민 정책에 반대를 표명하는 집단 행동이 아니라, 권력의 성격 자체를 둘러싼 갈등의 일부임을 보여주는 정치적 지형이 완성된다. 서론부의 마지막에 배치되는 민주당 의원 총격 사건은 이러한 지형 위에 정치적 폭력이라는 극점을 추가하면서, LA 시위 서사로 진입하기 위한 전환 축을 형성한다. “양쪽이 막 정말 극단으로 치닫고 막 충돌을 서로 겨뤄야 될 정도로 되고 있는 건 이유가 있어요.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이 LA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1:20:40)라는 앵커링은 LA 시위를 개별 사건이 아닌, 권위주의, 저항, 폭력이 교차하는 갈등 구조의 귀결점으로 위치시킨다.

본론부는 서론부와는 다른 종류의 긴장을 수반한다. 서론부의 정치적 갈등이 주로 의례나 구호와 같은 상징적 대립의 층위에서 전개되었다면, 본론부에서는 국가 권력이 신체에 행사하는 물리적 폭력으로 외화된다. 본론부의 서사는 폭력의 단계적 상승을 축으로 조직된다. LA 시내에 등장한 군용 차량과 대규모의 불법 체류자 검거, 시위 현장의 방화와 약탈은 병

20) 펠라니아의 표정에 대한 발화자의 재연은 다음과 같다: “아, 이거, 나, 여기까지 와서, 아... 대통령 하지 말랬지, 내가? 아, 나, 아, 나 집에 있는데 아, 내 대통령 하지 말라니까, 그거 지랄하니까 나... 이겨 갖고, 아, 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조금 뭔가 표정이 좋아 보이시진 않아요.”(1:10:21-1:10:40)

21) “동일한 날, 동일한 시각, 미국 전역에서는 또 다른 엄청난 초대형 시위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NO KING 시위입니다. 미국에 왕은 없다.”(1:13:07-1:13:20) 발화자에 따르면, 이 시위는 미국 전역 2천 곳 이상의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렬적으로 제시되며 충돌의 스케일을 부각한다. 주방위군과 해병대의 추가 투입 명령이 하달되는 과정 또한 긴박하다. 여기서 발화자는 대선 후보 시절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을 공약했던 트럼프의 발언을 소환하며, 수사적 엄포가 실행으로 전환된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한다. 취재 기자가 고무 총탄에 피격되는 중계 영상이 다시 송출될 때, 폭력은 더 이상 서술의 대상이 아닌 목적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련의 서사가 축적된 끝에 제시되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의 공식 성명은 연방 정부에 대한 공적 대결 선언의 성격을 띤다.

“캘리포니아는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불법 이민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에서도 체포를 하고 주에서도 보내고 있어. 그런데 중앙행정부가 주를 캘리포니아 주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군대를 투입해서 주민들을 잡아 가고 있죠. (...) “우리 중의 누군가가 영장 없이 단지 의심이나 피부색 때문에 거리에서 끌려간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 민주주의는 바로 우리 눈앞에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순간이 왔습니다.” 야, 진짜 세다, 진짜 세다. 자기 나라인데, 무슨 적국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 “이제 우리 모두가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야, 근데 아니, 잠깐만. 야, 이거 무슨 뭐 마르크스 무슨, 뭐 선언도 아니고 노동자여 단결하라도 아니고, “이제 우리 모두가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자, 왕을 향해서.” 프랑스 혁명 뒤, 그런 느낌이 좀 있게 굉장히 세계 발언을 했어요.(1:31:48-1:33:30)

뉴섬의 성명은 연방 정부가 주 정부의 관할권을 침해하고 영장 없이 시민을 체포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헌정적, 법적 항변이다. 그러나 인용과 인용 사이에 발화자가 개입함에 따라 초점은 항변의 내용이 아니라, 수사적 수위로 이동하게 된다. 가령 “야, 진짜 세다. 자기 나라인데, 무슨 적국하고 얘기하는 것처럼”(1:33:30)이라는 반응은 항변 내용에 담긴 법적·제도적

논리의 불합리성을 경유하지 않고, 발화의 어조와 수행적 압박감을 전면
에 부각한다. 뒤이어 “이거 무슨, 뭐, 마르크스 무슨, 뭐, 선언도 아니고, 노
동자여 단결하라도 아니고”(1:33:49)라는 비유가 덧붙을 때, 해당 성명은
과격하고 비상한 정치적 선언으로 재범주화된다. 문제는, 마르크스 선언
이나 프랑스 혁명이라는 레퍼런스의 역사적 정당성이나 그에 대한 가치평
가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발화 맥락 속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있다. 뉴섬의
성명을 급진적 체제 전복의 수사와 나란히 놓는 것은, 연방 정부에 대한 주
정부의 헌정적 이의 제기를 마치 과잉되고 지나치게 공격적인, 어쩌면 부
당한 정치적 행위인 것처럼 프레이밍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 비약적 비유
는 반동적 정치 행위에 대한 일상적 거부감에 암묵적으로 기대면서, 성명
이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정당성을 사전에 약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며,
결과적으로 해당 성명은 그 강도와 낮춤이 전면에서 부각된 채 소비된다.²²⁾

이러한 재범주화의 의미는 뉴섬의 성명이 본론부의 서사 안에서 접하는
위치를 고려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성명에 앞서 제시되는 ICE 투입, 시위
대와의 충돌, 기자 피격과 같은 장면들은 모두 발화자가 일정한 거리 속에
서 설명할 수 있는 사건들이다. 그러나 뉴섬의 성명은 사건의 보고가 아니
라, 그 자체가 정치적 발화 행위에 해당한다. 타인의 정치적 입장 표명을

22) 발화의 내용보다 발화행위의 수행적 속성, 즉 어조, 강도, 적절성, 수사적 효과 등을 다
시 해석의 대상으로 삼는 이러한 담론적 실천은 Silverstein이 말한 메타화행적 기능
(metapragmatic function)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Silverstein은 발화가 단순
히 지시적 의미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화 상황과 발화행위 자체를 지시·분류·
평가하는 메타화행적 층위를 동반한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 보면, 뉴섬의 성명에 대한
발화자의 반응은 성명의 법적·헌정적 주장보다 그 발화의 강도와 수사적 레지스터를
전면화함으로써, 정치적 항변을 수행적 인상의 대상으로 재조정하는 사례에 해당한
다. Michael Silverstein, “Metapragmatic Discourse and Metapragmatic
Function,” in John A. Lucy, ed., *Reflexive Language: Reported Speech and
Meta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p.33-58.

인용하고 해설하는 순간, 발화자는 단순한 정보 전달자의 위치에 머무르기 어려워진다. 성명에 동조하거나 반박하는 것은 자신의 정파적 입장을 노출하는 계기가 되고, 아무런 조정 없이 전달할 경우에는 성명의 정치적 힘이 해설 내부에 그대로 잔존하게 되는 까닭이다.

이 점에서 마르크스 비유를 통한 재범주화는 발화자가 직면한 곤란을 처리하는 하나의 수사적 응답으로 읽을 수 있다. 성명의 정치적 내용을 논평함으로써 직접적인 정치적 판단의 장에 들어서는 대신, 과장되고 이례적인 스펙터클의 장면으로 전환함으로써 그 정치적 긴장을 우회적으로 관리한다. 요컨대 정치적 주장은 실천과 응답을 요구하는 실천적 대상에서 발화의 위력을 실감하는 감각적 스펙터클로 치환되며, 발화자와 시청자는 정치적 판단의 주체라는 위치에서 벗어나 안전한 관람자의 자리에 안착하게 된다.

그러나 관찰자의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유지되던 담론적 평형은, 비인간화의 언어가 구체적인 폭력의 실재와 직접 결합하는 지점에서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러한 균열은 “그들은 동물입니다(They are animals)”라는 트럼프의 발언이 단순한 연극적 퍼포먼스를 넘어 실제적인 공권력 행사와 중첩되는 과정에서 가시화된다. 발화자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을 다음과 같이 소환한다.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대선 후보 시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불법 이민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약간 업포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소위 말해 요즘 표현으로 WWE 한다고. 아니, 대선후보니까 그럴 수 있지.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의사를 강하게 얘기했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지. (...)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오. 그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들은

동물입니다. 저들은 짐승 같은 놈들이에요. 그들에 대해선 자비를 펼칠 수 없습니다.”(1:23:49-1:25:00)

위의 발화 맥락에서 비인간화의 혐오 표현은 이른바 ‘WWE’라는 밈의 문법 안에 포섭된다. 발화자는 “그들은 동물입니다”라는 인용 문장을 트럼프라는 인물이 수행하는 과장된 연출이나 선거용 엄포로 받아들여졌던 캐치프레이즈의 계보 속에 위치시킨다.²³⁾ 이는 ‘슈카월드’ 채널이 축적해 온 트럼프의 기호적 인물로서의 성격, 곧 권위의 형식을 반복하면서도 그 내용을 과장과 유희의 문법 속에서 비워내는 페스티쉬적 재현의 연장선 위에 놓이며, 시청자가 캐릭터 퍼포먼스로 소비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ICE의 투입과 시위대 연행, 기자 피격이라는 구체적인 현장 정보가 축적된 뒤에 동일한 표현이 다시 소환될 때, 발화의 성격은 이전과 판이해진다.

한마디로 트럼프가 보기엔 LA는 지금 외적의 침입을 받고 있어. “우리는 미국 도시가 외국의 적에게 침략당하고 정복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을 했는데, 야, 이 말을 보면서, 야, 진짜 미국이 앞으로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LA 시위자들은 다른 나라 국기를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는 짐승들입니다.” 애니멀이라 그랬어요, 애

23) 이 대목에서 발화자는 분명 트럼프의 비인간화 표현에 대해 일정한 서술적 거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그가 “사람들은 이걸 약간 엄포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라고 말하며 문제 삼는 지점은, 트럼프의 공적 발화에 담긴 혐오 표현의 수위나 비윤리성이 당초 충분히 인식되지 않았다는 데 있지 않다. 이어지는 “실제 이게 액션으로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했거나”라는 발화에서 확인되듯, 초점은 트럼프의 언어가 실제 정책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는 오인과 판단의 실패에 맞춰진다. 이처럼 회고적 반성이 윤리적 차원을 경유하지 않는 구도 속에서, 비인간화 언어 자체의 폭력성은 주제화되지 않으며 트럼프의 캐릭터적 퍼포먼스의 영역 안에 머물게 된다.

니털. 휴먼이 아니야. 아까 얘기했잖아. 불법 이민자들은 휴먼이 아니야.
“애니멀입니다. 그들은, 그들은 애니멀입니다.” 인간다운 대우를 안 하겠
다. 약간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야, 진짜 세죠.(1:35:27-1:36:14)

발화자가 덧붙인 “아까 얘기했잖아”라는 표지는 과거의 캐치프레이즈가 현재의 폭력적 현실 위에 중첩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환기한다. 이 시점에서 ‘애니멀’은 더 이상 캐릭터의 성격적 과장을 보여주는 장치에 머물지 않게 된다. 국가 폭력의 한가운데서, 특정 집단의 인간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공언은 물리적으로 실현되기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실재하는 폭력의 맥락과 접속한 비인간화의 언표는 발화자의 비정치적 포지셔닝 자체를 비윤리적 묵인의 영역으로 밀어 넣으며 기존의 완충 장치를 무력화한다. 정치적 긴장은 이 순간 가장 날것에 가까운 방식으로 노출되며, ‘슈카월드’가 고수해 온 탈정치적 프레이밍은 뚜렷한 파열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기에 “야, 진짜 미국이 앞으로 힘들겠구나”(1:35:44)라는 발화자의 반응은 단순한 감상으로만 보기 어렵다. 이는 비인간화 발언이 내포한 윤리적 충격을 보편적 권리의 훼손이나 인간성의 박탈이라는 문제로 정면화하지 않고, 미국의 미래에 닥칠 구조적 리스크로 귀속하는 진단적 태도에 가깝다. 발화자는 해당 사안을 미국의 내부 문제로 고착시킴으로써 정치적 폭력의 실재로부터 해설자와 시청자의 위치를 한 걸음 떼어 놓고, 이를 통해 정파적 논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분석가의 시점을 확보한다. 여기서, 정치적 긴장을 직접 감당하는 대신 관찰 가능한 위협으로 치환하려는 탈정치적 수행의 단면이 확인된다.

결론부는 이러한 전략적 외부화를 보다 체계적인 형태로 이어간다. 발화자는 트럼프의 정책 수행에 대한 CBS·YouGov의 여론 조사 결과를,

“우리의 느낌과 약간 달라요”(1:42:38)라는 선제적 해석의 틀 안에 제시한다. 불법 체류자 추방에 대한 찬성률(54%)이나 관세 정책에 대한 호의적 응답(40% 이상)과 같은 수치를 나열하는 과정에서, 공적 차원에서 수행된 혐오 발화의 윤리적 충격은 흐려진다. 대신 해당 사안은 미국 사회 내부의 여론 지형과 한국 시청자 사이의 인식적 차이라는 문제로 재배치된다. ‘미국이 앞으로 힘들겠다’는 진단이 폭력의 충격을 구조적 리스크로 번역했다면, “우리의 느낌”과는 상이한 여론 조사 결과는 그 리스크를 비교가 가능한 사회 인식의 격차로 다시 정렬한다. 시청자 공동체와의 정서적 공감대를 전제하며 비인간화의 위기를 외부의 문제로 수렴하는 방식은, 균열이 발생한 탈정치적 구도를 복구하기 위한 시도로 읽힌다.

그러나 실시간 채팅 로그는 이러한 복구 시도가 채팅 공중의 실제 반응과 어긋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의 “그들은 동물입니다(They are animals)” 발언이 인용되는 구간(1:35:27-1:36:50)에서, 채팅창에는 비인간화 언표의 유희적 반복과 그에 대한 직접적인 동조가 분출되고 있었다. 나아가 해당 수사를 한국의 정파적 대립 구도 안으로 전이시키는 반응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출현했다.²⁴⁾ 비인간화의 수사가 윤리적 성찰의 계

24) 여기서 참조하는 채팅 로그는 추후 연구를 위해 ‘LA 시위’ 구간(1:06:05-1:49:22, 약 43분 20초) 라이브 방송 화면을 0.5초 간격(초당 2프레임)으로 추출하고, 화면의 채팅 영역을 문자 인식(OCR: Tesseract 5.3.0, 한국어·영어 모델)으로 변환한 뒤 연구자가 원본 방송과 대조하여 오인식과 중복을 수작업으로 보정해 구축한 자료다. 해당 구간에서 발화된 채팅은 전수 수집하였으며, 각 메시지는 프레임 순번, 발화 플랫폼(유튜브·치지직·트위치), 사용자 식별자, 메시지 내용으로 표준화하였다(총 13,209건, 고유 사용자 2,049명). 사용자 식별자는 중복 제거와 참여 양상 분석을 위해 보유 하되 본문에는 제시하지 않는다. 다음의 세 가지 양상은 “애니멀” 발언이 인용되는 구간(1:35:44-1:36:50)의 채팅 반응을 귀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흐름을 묶은 것이다. 첫째, 비인간화 언어의 유희적 반복이다: “애니멀”(치지직, 1:36:04 외 다수), “동물의 숲 실사판”(치지직, 1:36:17), “파티애니멀즈”(치지직, 1:36:17), “낫휴면”(유튜브, 1:36:29), “애니멀 크로싱”(치지직, 1:36:21), “사람 아니야”(치지직, 1:36:12 외 다수). 둘째, 비인간화에 대한 직접적 동조다: “짐승 맞

기가 아닌 유희와 정파적 동조의 자원으로 전유되는 이 흐름은, 결론부에서 발화자가 “우리의 느낌”을 호출하는 시점에 이르러서도 완강하게 지속된다. “당연히 찬성하지”(치지직, 1:42:57 외 다수), “국민이 찬성하면 해야지”(치지직, 1:42:57), “우리도 중국인 조선족 추방 찬성 많을걸”(치지직, 1:42:57), “우리 느낌과 반대라니? 나도 찬성인데”(치지직, 1:43:05)와 같은 반응은, 발화자가 가정한 ‘우리’의 윤리적 감수성이 채팅 공중의 실제 반응과는 이미 정동적으로 괴리되어 있음을 폭로한다. 본론부에서 축적된 유희적, 정파적 혐오 코드의 관성은 발화자의 윤리적 재조정 시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다.

3-4. 발화의 전략적 철회

‘LA 시위’ 구간의 라이브 발화는 발화자의 비정치적 포지셔닝이 위태로워지는 국면을 노출한다. 특히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실시간 채팅의 역동성과 우연성, 정동적 관성은 발화자의 앵커링이 거듭 실패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슈카월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편집 영상은 단순한 축약본이라기보다, 라이브 발화 과정에서 노출된 균열을 사후적으로 정리하는 또 하나의 수행 장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25년 6월 15일 라이브로 방송된 ‘LA 시위’ 구간(약 43분

지”(유튜브, 1:36:23 외 다수), “맞는말”(유튜브, 1:36:29 외 다수), “팩트”(유튜브, 1:36:36), “외적 맞지”(유튜브, 1:36:12). 셋째, 비인간화 언어를 한국의 정파적 대립 구도 안으로 전이하는 반응이다: “태극기부대 짐승이랑는데...”(유튜브, 1:36:36), “한국에서 성조기 흔들면 애니멀?”(유튜브, 1:36:36), “외적 맞는데? 우리도 오랑캐 짐승이라 했잖니”(유튜브, 1:36:50), “전LA도 광주는 애니멀”(유튜브, 1:37:11). 이 세 번째 양상은 비인간화의 언어가 단순히 반복되거나 동조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의 정파적 기억과 결합하면서 윤리적 감수성의 작동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개됨을 보여준다.

20초)과 6월 18일 업로드된 유튜브 편집본(33분 52초)의 사이에는 10분의 분량 차가 확인되는데, 단순한 발음 실수나 음향 오류에 따른 기술적 편집을 제외한 실질적 내용상의 편집이 결론부에 집약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라이브 스트리밍이 진행되는 동안 누적된 발화자와 채팅 사용자 간의 인식적 괴리가 편집자의 시선에서 감지될 만큼 표면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때의 편집이 해당 응축 지점에 대한 적극적인 담론적 조정의 방식으로 작동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번 시위 전에 CBS하고 YouGov가 설문 조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과 약간 달라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추방을 찬성하십니까’라고 미국인한테 물었더니, 지금 보시면 54%가 찬성한다고 나왔어. 반대한다가 46%입니다. **근데 불법 이민자 추방은 뭐 찬성할 수 있죠. 근데 굉장히 강압적으로 하는 거를 찬성하냐, 라는 거에서도 찬성한다.** 거의 반반 정도 나와요. 근데 또 무서운 건 거의 5대 5잖아. 54대 46이 숫자를 보세요. 5대 5예요. 5대 5. (...) 와, 그리고 제가 놀라웠던 건, 뭐, **불법 이민자 추방은 예민하니까 그럴 수 있죠. 합법으로 들어온 이민자는 상관없겠지만, 당연히 상관없겠지만, 불법 이민자는 뭐, 추방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면, ‘관세 정책을 지지하십니까’라고도 물어봤거든요. 전 이거는 무조건 20%나 30% 나올 줄 알았어요.(1:42:30-1:44:20, 강조는 인용자)

인용문에서 강조된 부분은 유튜브 편집본에는 삭제된 곳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앞서 채팅 공중의 반응과 정동적으로 어긋나 있음을 확인하게 된 계기인 “우리의 느낌과 약간 달라요”라는 발화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상정된 ‘우리의 느낌’과 대치되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강경 대응에 동조하는 채팅들이 다수 관찰되었다는 사실이나 그

비중만이 아니다. 발화자가 채팅 여론의 주된 흐름을 자신의 예상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인지하고, 그 간극을 조정하려 거듭 시도한다는 점이 중요하다.²⁵⁾ “불법 이민자”[체류자]라는 비동의의 단서를 반복해서 추가하거나, “근데 굉장히 강압적으로 하는 거”라는 윤리적 준거를 동조의 접점으로 설정하는 대목은, 발화자의 비정치적 포지셔닝이 채팅 공중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시험당하고 도전받는 압력의 강도와 불안을 보여준다.

그런데 유튜브 채널의 편집본에서는 이러한 교섭의 흔적마저 일괄적으로 소거된다. 채팅 공중의 반응을 이질적인 것으로 식별하면서 감추지 못한 당황스러움, 앵커링을 조정해야 했던 긴장된 소통 경험을 삭제함으로써, 라이브 원본에서 노출되었던 해설자의 동요를 사후적으로 평탄화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여론 조사 결과 중 경제적 사안에 대한 발화자의 주관적 반응(“전 이거는 무조건 20%나 30% 나올 줄 알았어요.”)은 편집본에 그대로 남는다.²⁶⁾ 이때 발화자가 표하는 놀라움은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을 일으켰다는 인과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미국인들을 다시 ‘우리’로서 함께 희화화할 수 있는 자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치적 포지셔닝과 결부된 자기 검열적 편집의 성격이 더욱 민감하게 드러나는 곳은 결론부 말미에 배치되었던 ‘루프탑 코리아’ 시퀀스 삭제다. 라이브 원본에서는 1992년 LA 폭동 당시 무장한 한인들의 이미지를 “Make Rooftop Koreans Great Again!”이라는 문구와 함께 X에 게시

25) 본문에서 강조한 두 발화, 즉 “찬성할 수 있죠”와 “예민하니까 그럴 수 있죠” 각각의 시간적 위치를 채팅 반응과 대조해 보면, 발화자의 조정 시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당연히 찬성하지”(1:42:57), “국민이 찬성하면 해야지”(1:42:57), “나도 찬성인데”(1:43:05) 등의 채팅 반응이 쏟아진 직후의 시점은, 발화자가 “찬성할 수 있죠”라며 양보하는 시점(1:42:53-1:43:05)과 겹치며, 약 1분 후 재차 “예민하니까 그럴 수 있죠”(1:43:57-1:44:06)라는 조정이 이어진다.

26) 이는 경제적 사안에 대한 반응이 채널의 핵심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비정치적 포지셔닝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관련 논란이 ‘LA 시위’ 구간의 마지막 화제로 제시된다.

발화자는 당시 사진을 찍었던 포토저널리스트의 게시물 삭제 요청, 한인 단체들의 항의를 함께 전달하며, 비판의 태도를 비교적 선명히 내비친다. 그는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자산을 지키려고 어쩔 수 없이”(1:48:52-1:49:01) 선택해야 했던 생존 투쟁의 기록, “어렸을 때 저 장면을 TV에서 봤었”(1:48:13-1:48:20)던 기억을 경유하여, ‘트럼프 장남’의 행위를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한다. ‘루프탑 코리안’ 이미지가 미국 보수 정치의 담론적 관습 속에서 질서 회복과 강경 대응의 상징 자원으로 전유되는 방식을 문제 삼는 순간,²⁷⁾ 발화자는 흥미로운 밈의 유통을 소개하는 비정치적 해설자의 자리를 벗어나, 그 보수적 기호 체계에 대한 판단의 위치에 들어선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판은 한국 시청자에게 호소력이 있는 공동체적 기억을 환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루프탑 코리안’의 무장한 한인 상인은 미국

27) 1992년 LA 폭동 당시, 한인 상인들이 무장하여 점포를 지켰던 장면에서 비롯된 ‘루프탑 코리안’ 이미지는, 총기 소유권 옹호 커뮤니티에서 수정헌법 제2조와 자기방어의 상징으로 전유되었고, 2020년 BLM 시위 국면에서는 약탈과 폭동에 맞선 시민 무장의 표상으로 대규모 재유통되었다. Kimberly Yam, “The Real, Tragic Story Behind That ‘Roof Korean’ Meme You May Have Seen”, *HuffPost*, 2020.06.11., https://www.huffpost.com/entry/roof-koreans-meme-know-real-story_n_5ee110a1c5b6d5bafa5604f3. (접속일: 2026.04.28.) 보수 매체 *Townhall*에 게재된 칼럼 역시 “우리는 모두 미국 시민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의무가 요구되는 때에는 각자 자기 내면의 ‘루프탑 코리안’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이 이미지를 시민 무장과 자기방어의 윤리로 전유한다. Kurt Schlichter, “Be a Rooftop Korean”, *Townhall*, 2019.05.02., <https://townhall.com/columnists/kurtschlichter/2019/05/02/be-a-rooftop-korean-n2545651>. (접속일: 2026.04.28.); Park Ung, “From memes to gun rights: Rooftop Koreans return as LA erupts”, *The Korea Times*, 2025.06.12., <https://www.koreatimes.co.kr/southkorea/society/20250612/bullets-memes-and-second-amendment-rooftop-koreans-return-as-la-erupts>. (접속일: 2026.04.28.)

우파 온라인 문화에서는 사유재산 방어와 자위권의 상징으로 전유되지만, 한국 시청자에게는 인종화된 갈등 속에서 스스로를 지킨 한인 남성의 표상으로 공명할 가능성을 지닌다.²⁸⁾ 따라서 이 장면의 비판적 힘은 군 복무의 기억, 자기방어의 감각, 인종적 자긍심, 남성적 동일시가 느슨하게 결합된 가정된 공중의 잠재적 기반에 기대고 있다.²⁹⁾ 문제는 바로 이 기반이 슈카월드 채널이 그동안 친밀감과 신뢰의 접점으로 삼아 온 '우리'의 감각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루프탑'이 환기할 것이라 기대되는 이 자긍심은 공동체적 기억과 공감의 외양을 띠지만, 바로 그 친밀함으로 인해 적대와 손쉽게 공명할 수 있다. 트럼프의 비인간화 발언이 유희와 동조 속에서 증폭되었던 채팅 로그는 이를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튜브 편집본에서 해당 시퀀스가 통째로 삭제된 것은 단순히 부가적 에피소드나 감정적 여운을 들어낸 것이 아니다. 삭제의 일차적 효과는 트럼프 주니어의 전유에 대한 비판이 발화자를 정파적 좌표 위에 세울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있다. 나아가 소거된 시퀀스가 'LA 시위' 주제가 마무리되는 의미화 지점에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편집은 비정치적 해설의 질서가 기대면서도 표면화되기를 피해야 하는 공중의 정치적·정동적 기반, 즉 혐오와 적대의 언어가 익숙한 감각을 타고 되살아날 수 있는 바로 그 기반을 시야에서 거두어, 탈정치적 표면을 복원하는 담론적 조정

28) 루프탑 코리안 밈의 한국 내 기억·수용 양상에 대해서는 Han Sang Kim, "The 'Roof Koreans' Meme: The Collective Memory of Los Angeles 1992 in South Korea,"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84, No. 2, 2025, pp.497-509 참조.

29) 이 채널의 구성적 공중이 남성 시청자를 전제한다는 점은 '아재'로서의 자기 연출과 군복무 기억을 매개로 한 공감대 형성(3-1절), 그리고 멜라니아를 논의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희화 장치로 동원하는 관성(3-3절) 등에서 드러난다. 다만 이 글은 젠더화된 공중 형성 자체를 독립적 분석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이 문제는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의 남성 중심적 참여 문화, 채팅 공중의 정동적 결속, 인포테인먼트 해설자의 친밀성 수행이 어떻게 결합하는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과제로 남긴다.

의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이처럼 예민한 자기 검열의 감각과 선제적 대응은 ‘정치는 모른다’는 ‘슈카월드’ 채널의 자기규정이 선언적 태도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는 자기 검열과 사후적 조정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 수행적 구성물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비정치적 포지셔닝이 가장 민감하게 방어되는 순간은 발화자가 윤리적·정치적 판단에 가장 근접한 순간이며, 라이브와 아카이브 사이의 간극은 이 불안정한 구성물의 이음새가 가장 물질적인 형태로 노출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4. 맺음말: 탈정치화의 비용과 신뢰의 조건

플랫폼 미디어의 정치적 효과는 주로 디지털 포퓰리즘의 관점에서 정파적 양극화와 혐오 담론의 확산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플랫폼 환경에서 정치적 의미가 생성되고 유통되는 경로는 보다 다층적이다. 특히 대중 일반을 겨냥한 인포테인먼트 채널은, 정치가 미디어 형식과 논리를 내면화하는 심부의 메커니즘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에 이 글은 비정치적 태도를 전면에 내세운 채널 ‘슈카월드’를 대상으로, 정치적 쟁점이 직접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은 채로 공유되는 방식과 그 의미 구성이 변형되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분석은 두 층위로 설계하여, 채널 전반에 걸쳐서는 주제 분포 및 섬네일 분석을 바탕으로 탈정치화의 주요 배열 원리를 확인하고, 개별 에피소드(LA 시위)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그 배열 원리가 실제 라이브 스트리밍 발화 환경 속에서 수행되는 구체적 양상과 특징을 규명하였다.

'슈카월드'가 표방하는 비정치적 포지셔닝은 정치적 사안을 배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문제를 속에 재배열하는 방식을 통해 구성된다. 정치적 사안은 경제적 인과관계 속에 놓인 변수나 전망으로 맥락화되고, 유력 정치인의 권위적 발화는 반복적으로 소비 가능한 형태로 가공되며, 정책 결정과 권력 주체들 사이의 충돌은 밈과 스펙터클의 형식을 통해 유희거리로 유통된다. 이러한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정치적 사안은 권력 행사의 정당성과 그에 따르는 공적 책임을 따져야 할 쟁점으로 숙고되기보다는, 관리와 관전의 대상으로 전환되고 만다. 그리고 채널 전반의 구성과 수사에서 반복되는 탈정치화의 배열 원리는, 정치적 판단을 우회하거나 유보하는 해설자 '슈카'의 비정치적 포지셔닝과 공명하며 '슈카월드' 특유의 신뢰 자본을 떠받치는 토대가 된다.

이때 '슈카'가 표방하는 비정치적 포지셔닝은 끊임없는 조정과 방어를 통해서만 유지되는 수행적 구성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LA 시위' 에피소드 분석에서 드러났듯이, 발화자는 정치적 사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유희적 전이, 메타화행적 조정, 전략적 외부화와 같은 다양한 담론적 장치를 동원하여 정치적 긴장을 완충하고자 한다. 특히 시청자와의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전제되는 라이브 스트리밍 현장은 발화를 조정하게끔 하는 동력과 긴장의 강도를 높인다. 실시간으로 누적되는 채팅 반응은 특정 방향의 정동을 빠르게 증폭시키며, 발화자에게 이를 지배적인 공중의 의사로 오인하거나 과잉 지각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다. 유튜브 편집본은 라이브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노출된 발화의 동요를 사후적으로 소거하고 정돈하는 조정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는 비정치적 포지셔닝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 검열의 기제가 플랫폼 미디어의 생산 공정 전반에서 공고하게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편집을 통한 사후적 봉합은 그러나 단지 발화자의 동요를 지우는 데 그

치지 않는다. 'LA 시위' 구간 내내 정치적 사안은 책임과 판단을 묻는 언어로부터 떼어져, 집단적 참여 속에서 증식하는 유희의 형식으로 재배치되었다. 이 형식에 내재한 추동력은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는 선에서 멈추지 않는다. 유희는 비진지함의 신호로 가담의 책임을 면제하고, 변주할 자리를 열어 생산으로 보상하며, 농담의 공유를 '우리'에 속하는 표지로 만든다. 그렇게 동참에 대한 거리낌이 걷힌 자리에서, 트럼프의 비인간화 발언이 '애니멀'에 과초점된 말놀이를 반복되고 정파적 기억의 자원으로 옮겨 쓰일 때, 혐오는 손쉽게 비준되고 만다. 즉 탈정치화는 혐오 정치의 반대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쟁점에서 윤리적·정치적 판단의 무게를 덜어내고 유희의 레지스터 안에 묶어 뒀으므로, 비인간화의 언어가 즐길 거리로 수용되고 적대의 자원으로 재활용될 문턱을 낮추는 가능 조건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역치의 저하는 발화자 개인의 성향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슈카월드'에서 비정치적 포지셔닝은 정파적 이해로부터 거리를 둔 중립적 관찰자라는 인상을 부여하고, 반복적 시청과 친밀감을 매개로 채널과 이용자 사이에 신뢰를 누적한다. 이 신뢰는 일차적으로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속에 축적되는 자원이지만, 이용자의 반응이 콘텐츠의 가시성을 좌우하는 플랫폼 환경에서는 곧 구독자 수와 도달 규모라는 영향력의 자원으로도 작동한다. '신뢰 자본'이 단순한 관계적 신뢰에 머무르지 않고 채널의 발화 권위와 위기 대응에 동원될 수 있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 사안이 판단의 언어 대신 경제적 해석과 유희의 코드로 번역되는 일은 신뢰 자본을 보전하려는 조정으로 이해된다. 정파적 판단의 노출은 관계적 신뢰의 훼손인 동시에 그 신뢰가 떠받치던 영향력의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시간 채팅이 정동을 빠르게 증폭하는 라이브 스트리밍의 조건은 이러한 포지셔닝의 안정성을 수시로 흔들고, 발화의 흐름을 사후에 분절 및 조정하는 라이브-아카이브의 혼종 구조

는 그 동요가 노출된 지점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도록 부추긴다. 비정치적 포지셔닝을 방어하려는 자기 검열이 라이브 송출과 사후 편집이라는 두 공정에 걸쳐 작동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비정치적 포지셔닝은 선언적으로 일거에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국면마다 거듭 관리되고 갱신되어야 하는 수행적 구성물이다. 그 부담은 '슈카월드' 채널의 모토가 변경된 데에서 단적으로 환기된다. "정치는 아주, 전혀, 대단히 모른다"라는 자기방어적 규정이 "저널리즘을 지키는 채널이 되겠다"라는 선언으로 대체되었다는 점은,³⁰⁾ 끊임없는 의심과 검열 속에서 비정치적 포지셔닝을 유지하는 피로감, 그리고 그 유효성에 대한 회의를 보여준다. 다만 여기서 '저널리즘'이 규범의 차원에서 소환되는 맥락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슈카월드'는 취재, 편집, 검증, 책임 귀속 등 일련의 제도적 절차가 아니라 이용자와의 친밀성 위에서 축적된 신뢰를 그 심급으로 삼고 있으며, 이로써 보증받고자 하는 것은 정파성과 거리를 둔 객관적 해설자라는 위상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저널리즘'의 소환은 탈정치화의 종결이 아니라 그 갱신에 해당한다.

비정치적 포지셔닝으로 신뢰를 축적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속의를 거듭 유보하는 이 과정에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따른다. 가치판단의 유예를 저변으로 지속되는 소통 속에서 윤리적 감수성은 마모되고 혐오는 유희의 소재로 소비된다. '슈카월드'의 사례는 플랫폼 미디어 환경에서 신뢰 자본의 축적이 바로 이러한 대가 위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30) 모토 변경의 계기는 일간베스트에서 조작한 WHO 로고를 사전 검수 없이 노출한 9월 28일의 방송 사고로 추정된다. 비판은 자료 검증의 부주의함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피드, 포스트에서는 '슈카'의 '실제' 정치색을 추궁하는 형태로 빠르게 비화되었다. 모토는 사고 다음 날인 9월 29일 변경되었다. 장구슬, <360만 유튜버 슈카 발각... '盧조롱' 일베 합성 로고 사용 논란>, 『중앙일보』, 2025.09.2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0845>. (접속일: 2026.04.15.)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슈카월드’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syukaworld>

2. 논문과 단행본

- 김종우, 「한국의 극우 포퓰리즘과 인권: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 극우 유튜브 채널과 퇴행적 인권 담론」, 『인권연구』 제8권 1호, 한국인권학회, 2025, 39-78쪽.
- 도묘연,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특성, 미디어 이용, 포퓰리즘 성향의 영향구조」, 『한국정당학회보』 제21권 1호, 한국정당학회, 2022, 81-117쪽.
- 박홍원, 「탈정치화 시대의 미디어와 민주주의」, 『한국방송학회』 제30권 5호, 한국방송학회, 2016, 5-41쪽.
- 송정민·김범수·이병재, 「탈진실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생산, 유통, 소비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32권 2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3, 91-124쪽.
- 송현주·신승민·박아란, 「유튜브는 사용자들을 정치적으로 양극화시키는가?: 주요 정치 및 시사 관련 유튜브 채널 구독자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현대정치연구』 제14권 2호,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1, 5-34쪽.
- 이지형·김민정, 「유튜브 ‘사이버 랙카’ 채널의 여성혐오 담론 구성 전략: 비판적 담론 분석에 기반한 고찰」, 『미디어, 젠더 & 문화』 제40권 2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5, 47-80쪽.
- 장우영·송경재, 「유튜브와 당파적 분열: 유튜브 시사·정치 채널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34권 1호, 대한정치학회, 2026, 133-165쪽.
- 정금희, 「정치 유튜브 개인 방송에서 ‘정파성’은 어떻게 발현되는가?」, 『언론정보연구』 제58권 3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21, 46-109쪽.
- 조준혁, 「경제 정책 담론 형성에서 유튜브의 역할: ‘슈카월드’ 금투세 콘텐츠와 댓글의 토픽모델링 분석」, 『콘텐츠와산업』 제7권 3호, 2025, 15-21쪽.
- 로버트 D. 퍼트넘, 『나 홀로 불링: 사회적 커뮤니티의 붕괴와 소생』, 정승현 역, 페이퍼

- 로드, 2009.
- 프레드릭 제임슨, 송연승 역, 「포스트모더니즘과 소비사회」, 윤난지 역음,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눈빛, 2025, 65-85쪽.
- B. A. Williams & M. X. Delli Carpini, *After Broadcast News: Media Regimes, Democracy, and the New Information Environ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 C. Hay, *Why We Hate Politics*, Cambridge: Polity Press, 2007.
- D. K. Thussu, *News as Entertainment: The Rise of Global Infotainment*, London: SAGE, 2007.
- G. Mazzoleni & W. Schulz, "Mediatization of Politics: A Challenge for Democracy?," *Political Communication* Vol. 16, No. 3, 1999, pp.247-261.
- H. S. Kim, "The 'Roof Koreans' Meme: The Collective Memory of Los Angeles 1992 in South Korea,"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84, No. 2, 2025, pp.497-509.
- J. G. Blumler, "The Fourth Age of Political Communication," *Politiques de communication*, Vol. 6, No. 1, 2016, pp.19-30.
- J. S. Coleman,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upplement, 1988, pp.S95-S120.
- J. Strömbäck, "Four Phases of Mediatization: An Analysis of the Mediatization of Politic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Vol. 13, No. 3, 2008, pp.228-246.
- J. van Dijck, T. Poell & M. de Waal, *The Platform Society: Public Values in a Connective Wor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 M. Silverstein, "Metapragmatic Discourse and Metapragmatic Function," in J. A. Lucy(ed.), *Reflexive Language: Reported Speech and Meta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p.33-58.
- M. Wood & M. Flinders, "Rethinking Depoliticisation: Beyond the

Governmental,” in M. Flinders & M. Wood(eds.), *Tracing the Political: Depoliticisation, Governance and the State*, Bristol: Policy Press, 2015, pp.21-46.

M. X. Delli Carpini & B. A. Williams, “Let Us Infotain You: Politics in the New Media Environment,” in W. L. Bennett & R. M. Entman(eds.), *Mediated Politics: Communication in the Future of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p.160-181.

R. M. Milner, “Hacking the Social: Internet Memes, Identity Antagonism, and the Logic of Lulz,” *The Fibreculture Journal* Vol. 22, 2013, pp.62-92.

W. Phillips, *This Is Why We Can't Have Nice Things: Mapping the Relationship between Online Trolling and Mainstream Culture*, Cambridge, MA: MIT Press, 2015.

3. 기타자료

장구슬, <360만 유튜버 슈카 발각... '盧조롱' 일베 합성 로고 사용 논란>, 『중앙일보』, 2025.09.2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0845>. (접속일: 2026.04.15.)

정석준, <‘백만 유튜버의 위업’...라디오스타 출연, 슈카 누구?>, 『아주경제』, 2021.01.07., <https://www.ajunews.com/view/20210106174429238>. (접속일: 2026.04.15.)

JaeJae, <[유튜브 채널 추천-12] 슈카월드! 경제, 뉴스, 시사 유튜버! 재미있는 입담은 덤!!>, 2019.11.05., <https://jae-jae.tistory.com/archive/20191105>. (접속일: 2026.04.15.)

K. Schlichter, “Be a Rooftop Korean”, *Townhall*, 2019.05.02., <https://townhall.com/columnists/kurtschlichter/2019/05/02/be-a-rooftop-korean-n2545651>. (접속일: 2026.04.28.)

K. Yam, “The Real, Tragic Story Behind That ‘Roof Korean’ Meme You May Have Seen”, *HuffPost*, 2020.06.11., <https://www.huffpost.com/entry>

플랫폼 인포테인먼트와 탈정치화의 수행-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의 비정치적 포지셔닝과 신뢰 자본 / 김수안 155

/roof-koreans-meme-know-real-story_n_5ee110a1c5b6d5bafa56
04f3. (접속일: 2026.04.28.)

Park Ung, “From memes to gun rights: Rooftop Koreans return as LA erupts”,
The Korea Times, 2025.06.12., [https://www.koreatimes.co.kr/south
korea/society/20250612/bullets-memes-and-second-amendment
-rooftop-koreans-return-as-la-erupts](https://www.koreatimes.co.kr/south-korea/society/20250612/bullets-memes-and-second-amendment-rooftop-koreans-return-as-la-erupts). (접속일: 2026.04.28.)

Abstract

Platform Infotainment and the Performance of Depoliticization - Apolitical Positioning and Trust Capital on the YouTube Channel *Shukaworld*

Kim, Sue-Ahn(Yonsei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how political issues are depoliticized in platform infotainment channels that explicitly foreground an apolitical stance. Taking the YouTube channel *Shukaworld* as a representative case, the study analyzes the topic distribution and thumbnail composition of 1,724 videos uploaded between 2019 and 2025, and conducts a close reading of the speech structure and editing practices in the “LA Protests” segment from a live stream broadcast on June 15, 2025. The analysis shows that *Shukaworld*'s apolitical positioning is not constituted by excluding political issues, but by transposing the language of political judgment into other problem frames through economic interpretive codes, the semiotic figuration of public figures, and memetic play. Across the channel, war is recoded as a question of economic sustainability, elections as matters of market volatility and investment opportunity, and diplomatic and trade conflicts as issues of responding to external variables. Donald Trump, in particular, functions as a sign that simultaneously mediates economic variables, international conflicts, and character-based memetic play, becoming a node through which political tension is converted into consumable spectacle. The “LA Protests” episode further reveals that this depoliticizing arrangement is not always stably maintained in live broadcast environments. When Trump's dehumanizing speech converges with scenes of state violence, the channel's playful and economic translation devices reach their ethical limits. The YouTube edited

version subsequently erases the speaker's hesitations and the potential for political recontextualization that surfaced during the live broadcast. Through the case of *Shukaworld*, this article elucidates how trust capital in platform media environments can be accumulated at the cost of suspending political responsibility and eroding ethical sensibility, and clarifies the specific ways in which depoliticization is performed.

(Keywords: *Shukaworld*, depoliticization, apolitical positioning, platform infotainment, live streaming, trust capital, platform media, YouTube, meme)

논문투고일 : 2026년 4월 29일

심사완료일 : 2026년 6월 11일

수정완료일 : 2026년 6월 12일

게재확정일 : 2026년 6월 15일